

2022년  
기획연구

## Part. 3

# NPO의 블록체인 활용 및 실행방안: 가상자산 기부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강형구** 부교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공동연구자 **신은정** 조교수, 백석대학교 첨단 IT학부 핀테크 전공

공동연구자 **장윤주** 간사,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 책임연구원

---

### 강 형 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부교수

---

#### 학력

듀크대학교 류쿠아 경영대학 박사

#### 주요경력

이화여자대학교, 리만브라더스

#### 연구실적

- Olga Hawn, Hyoung-Goo Kang , (2018), The Effect of Market and Nonmarket Competition on Firm and Industr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Sinziana Dorobantu , Ruth V. Aguilera , Jiao Luo , Frances J. Milliken (ed.) Sustainability, Stakeholder Gover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dvances in Strategic Management, Volume 38) Emerald Publishing Limited, pp.313 - 337
  - Kang, H. G., Woo, W., Burton, R. M., & Mitchell, W. (2018). Constructing M&A valuation: how do merger evaluation methods differ as uncertainty and controversy vary?. Journal of Organization Design, 7(1), 2.
-



## 공동연구원

---

### 신은정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백석대학교 첨단 IT학부 핀테크 전공 조교수

---

### 학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재무금융 박사  
Duke University MBA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 주요경력

씨티은행  
솔루스플러스

### 연구실적

- 신은정, & 강형구. (2021). 디파이가 자산운용 미치는 영향: ESG'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연구, 9(2), 62-82.
  - Shin, E. J., Kang, H. G., & Bae, K.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POs with blockchain technology. Sustainability, 12(15), 6158.
  - 김석환, 신은정, 배성영, & 강형구. (2018). 비트코인 수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8(3), 187-226.
-



## 공동연구원

---

###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간사

---

####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정책학과 박사과정(수료)

#### 연구실적

- 장윤주. (2022).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20(1), 335-368.
  - 장윤주, 장혜원, 박다윤. (2022).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사례 및 활용 가능성 탐색: 가상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 김성주, 장윤주, 이예림. (2022). 한국의 기부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 전현경, 이영주, 장윤주. (2017). 국내 비영리조직 투명성에 관한 인식 조사. 아름다운재단.
  - Sung-Ju Kim, Yoon-Joo Jang. (2022). The estimates of philanthropic behavior and attitude in South Kore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hilanthropy and Marketing, 27(4).
-

## 요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화폐, NFT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기부를 고려하는 기부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부에 적용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를 고려하는 기부단체들이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기부단체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을 이용하고,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는 것이 증가하였다. 기부자들은 급상승한 가상화폐 가치로 인한 양도세를 줄이고, 현금을 송금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기부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기부에 활용하였다. 또한 NFT 시장이 성장하면서 NFT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NFT를 기부 증명이나 기부 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기부단체가 가상자산 기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의 목적에 맞는 지 확인하고 가상자산 기부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모금 및 운영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 개설, 기부금 수탁, 환전, 회계 처리를 사전 논의 및 내·외부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부 환경 하에서 기부 단체들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부 재원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및 운영 방침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 단체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하면서 가상자산 기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키워드: #블록체인, #가상화폐, #가상자산 기부, #NFT, #사례 연구

## 서론

한국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2000년대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옹호 기능을 하는 다양한 비영리조직과 재단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내 공익법인은 2014년 29,849 개에서 2016년 34,743개, 2020년 41,554개로 증가하였으며,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기부 총액은 8조 3천 1백억 원에 이른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조직들의 적극적인 모금 마케팅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3.9조 원 이던 총 기부 금액은 2020년 14.4조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8년 개인 기부금은 기업 기부를 앞질러 그 비율이 65%를 차지한다(노연희 외, 2022).

기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부 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기부 방식인 거리모금, ARS, 지로 등은 감소 추이를 보이는 반면 크라우드펀딩, 팬덤기부, P2P 등 새롭게 떠오르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김성주, 장운주, 이에림, 2021).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하향 추이를 보이던 전통적인 기부 방식으로도 기부 행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시민들이 국가적 위기에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내는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금단체들도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했던 대면모금(Face to Face) 방식은 철회될 수 밖에 없었고, 기부자들은 약정을 통한 정기기부보다 SNS를 활용하여 관심 있는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으로 기부 행동이 변화되었다. 모금단체들은 비대면, 온라인, SNS 그리고 광고를 접목한 방식으로 빠르게 모금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분화되었다.

이러한 기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그리고 NFT(대체불가능토큰, Non-Fungible Token)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비영리조직의 모금 환경에도 적용된다.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직접 기부를 받는 사례가 생겨났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모금 플랫폼도 오픈이 되었다. 기존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 모금 플랫폼에 동시에 모금함을 개설해 기부를 받은 한 단체에 따르면, 인지도가 아직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모금함의 모금이 더 빨리 종료되었

다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호응이 좋았는데, 이는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않아서 기부하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정 정도 부합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점이 있는 기술로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비영리조직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기부자와 NPO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강형구 외, 2018). 또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기부문화에 대해 친근해질 수 있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메타버스<sup>1)</sup>활용에 관한 이해를 돕는 본 연구는 NPO 생태계 및 각 이해관계자에게 아래 표에 기술된 것과 같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리고 NFT의 활용사례를 탐색하고 국내 비영리조직이 이를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이해관계자별 연구의 필요성

이해 관계자	연구의 필요성
NPO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어 평판 리스크 감소, 기부문화의 확산, 다양한 NPO 참가자의 확대</li> <li>• NPO 프로젝트별 운영에 대한 평가 용이</li> <li>• 혁신적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한 기부의 증가로 인한 생태계 확장</li> <li>• NPO의 국제 프로젝트 운영 및 자금 조달이 용이해짐</li> </ul>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의 익명성은 유지하지만 세제 혜택 등 다른 혜택을 유지하여 기부를 장려</li> <li>• 기부한 이후 운영 결과와 펀드 사용에 대한 확인이 가능</li> <li>• 가상자산 및 가상 세계를 활용하여 쉽게 기부</li> <li>• 기부 증명의 블록체인에 기록 및 증명</li> </ul>
NP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문제 해결로 인한 비용 감소 및 평판 위험 감소</li> <li>• 조직 내 건강한 거버넌스 확립</li> <li>• 이해관계자에게 실제와 가상 채널을 통한 서비스 및 정보 제공</li> <li>• 새로운 기부 채널 및 자원 확보</li> </ul>
NPO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프로젝트 참가 성과 및 경력 관리가 가능</li> <li>•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참여가 독려됨</li> </ul>

1)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영리 단체에서 활용에 대한 내용은 Appendix에 추가하였다.

# I. 연구 방법론

NPO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활용 및 실행을 위해 본 연구진은 사례 연구와 인터뷰를 사용하여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 1. 사례 연구

본 연구는 특성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적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개발은 특히 아래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체계적, 과학적, 학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Eisenhardt, 1989). 위 프레임워크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질적 연구 방법 프레임워크

연구 단계	연구 활동	이유
연구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PO 및 블록체인 관련 주요 이슈 탐색 후 연구의 우선 순위를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율적인 연구 가능</li> <li>사례 분석을 통해 수립할 이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li> </ul>
사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 연구 대상 블록체인 관련 사례를 (무작위 추출이 아닌) 이론에 기반하여 추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론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없는 변수를 통제</li> <li>외적 타당성 확보; 이론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수집</li> </ul>
연구 방법 및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데이터를 함께 수집</li> <li>여러 연구원을 활용하여 객관성 담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견된 증거를 통해 근거를 강화</li> <li>도출된 증거 간의 공통성 도출</li> <li>다양한 관점 및 타당성 있는 근거 확보</li> </ul>
연구 분야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함께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분석 속도를 높이고 연구 주제에 맞게 데이터 수집을 조정</li> <li>연구 테마를 발견하고 사례별 독특한 특징을 이론 수립에 이용</li> </ul>

데이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내 분석 및 사례간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에 익숙해지고 예비 이론 수립이 가능</li> <li>• 연구 주제와 데이터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li> </ul>
가설적인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례 간의 논리를 이해하고 “why”에 대한 해답을 찾음</li> <li>• 위 과정을 반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타당성, 측정 가능성에 초점; 이론을 보다 분명히 하고, 확장 및 확정을 위한 내적 타당성 확보</li> </ul>
기존 문헌과의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대조되는 기존 연구 비교</li> <li>• 유사한 기존 연구를 비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적 타당성 확보 및 이론적 수준의 향상</li> <li>•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이론적 수준을 높임</li> </ul>
이론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적 시사점과 중장기 발전 방안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적 성숙도가 높아질 때까지 위 과정 반복</li> </ul>

대부분의 사례는 연구, 리포트 및 기사를 토대로 찾아 각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발표한 내용도 포함하여 최신 사례를 수집하였다. 또한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보고서와 각 인플루언서들이 제공하는 비공식적 블로그의 내용도 참조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비즈니스적 접근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출간된 연구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 후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가상자산 기부를 준비 중인 NPO 담당자들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 서비스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가상자산 기부 트렌드, 가상자산 기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차 인터뷰 이후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 주요 기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이슈별로 현황 및 실행 방법을 확인하였다.

## II. 사례 연구

2018년 당 연구진이 기부문화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연구 이후 2022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부에 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부생태계에서 블록체인 활용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 당시 연구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의 등장, 방법의 다양화 등 가상자산 기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글로벌 대형 NPO들이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시작한 것은 큰 변화 중에 하나이고 중소형 NPO들도 블록체인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시작한 NPO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NFT의 활용이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ERC-721 표준을 발표하면서 NFT가 발행되기 시작하였고 NPO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홍보 및 행사 운영을 위해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NPO들의 사례가 생겨난 것도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와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기부, NPO가 NFT를 리워드 및 기부 증명으로 활용하는 사례,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실제 운영 사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사례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그 중 대표적인 몇몇 사례는 자세히 소개한다. 메타버스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가상세계에서 가상자산과의 결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NPO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하나이므로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 1.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해킹의 우려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관하며, 데이터 블록들을 체인으로 연결하여 P2P 네트워크 참여자의 모든 데이터를 함께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양정훈, 2018). 블록체인의 특징은 기부 과정의 투명성, 기부 정보의 보존이 중요한 기부 단체의 필요와 맞아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을 [표 3]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3] 블록체인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프로젝트	주요 내용
체리 (CHER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이포넷(E4Net)에서 시작된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프로젝트</li> <li>• 사랑의열매, 월드비전, 희망친구 기아대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여러 NPO 기관과 협력</li> <li>•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기부단체와 개인에게 직접 지원, 토큰 충전으로 기부 가능</li> </ul>
KT그룹 희망나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희망나눔재단이 운영 중인 기브스퀘어는 봉사를 통해 적절한 포인트를 글로벌 나눔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기부 플랫폼</li> <li>•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부자의 포인트 기부 현황뿐 아니라 집행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기부 의 투명성 향상</li> <li>•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낙후 지역의 ICT, 의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li> </ul>
비트기브 (BitG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로 2016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브트랙(GiveTrack) 플랫폼을 출시</li> <li>• 기부자는 기브트랙 내에서 기부금 사용 내역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li> <li>• KT희망나눔재단이 운영 중인 기브스퀘어는 봉사를 통해 적절한 포인트를 글로벌 나눔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기부 플랫폼</li> </ul>
기빙블록 (The Giving 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SOL)를 포함하여 약 80개의 가상자산을 기부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li> <li>•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미국암학회(American Cancer Society), 코드투인스파이어(Code to Inspire) 등 환경, 동물, 인권 등 25개 분야의 1,000개 이상의 자선단체 파트너 존재</li> <li>• 가상자산 수탁 및 환전을 제미니(Gemini)와 협업으로 제공하여 NPO들이 원스톱으로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운영할 수 있게 함.</li> </ul>
에이드체인 (Aidch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이드코인(AID)을 사용하여 비영리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통합 기부 생태계</li> <li>• 기부자는 에이드체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 추적 가능</li> <li>•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과 같은 주요 글로벌 자선단체와 협력에이드코인(AID)을 사용하여 비영리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통합 기부 생태계</li> </ul>

## (1) 비트기브(BitGive)

비트기브는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자선단체로, 2016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브트랙 플랫폼을 출시했다(염현주, 2022). 기브트랙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제한된 금융 서비스, 거래 및 서비스 수수료, 해킹 및 사기 가능성으로 인한 투명성 부족, 긴 대기 시간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기브트랙은 언제 어디서나 참여자가 기부금 사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더 낮은 수수료로 기부 프로젝트의 진행이 가능하다.

2015년 기준 평균적으로 기부 프로젝트에서 전체 자금의 10.96%가 기부금이 은행을 통해 이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전체 자금의 6.36%는 수수료로 지출되었다(Shin, E. J. et al, 2020). 반면 비트기브의 기부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네트워크가 받는 수수료의 1% 미만을 차지하므로 국제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은행을 통한 기부는 5~7일, 신용 카드 결제는 24시간이 소요되지만, 가상자산 결제는 암호로 보호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30분 이내 빠르고 투명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브트랙 플랫폼에서 도움이 필요한 마을 목록을 보고 기부할 마을을 선택하고 기브트랙이 소유한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기부가 이루어진다(GiveTrack, n.d). 이후 기부자는 기브트랙 내에서 기부금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등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 실시간 거래 기록을 추적하는 기능은 조작 및 오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기부를 원하는 프로젝트는 비트기브에 가상자산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기부를 받는 과정이 간편하다. 비트기브의 사용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23개의 각국 통화와 라이트코인(LTC, Litecoin), 이더리움(ETH), 대시코인(Dash) 등 10가지 종류의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기부할 수 있다.

비트기브의 기브트랙은 2014년부터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섹션 501(c)(3) 지정<sup>2)</sup>을 받아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하였고,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의 확립 및 활성화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기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2) 섹션 501(c)(3)에 설명된 조직을 일반적으로 자선 조직이라고 한다. 공공 안전 조직에 대한 테스트를 제외하고 섹션 501(c)(3)에 설명된 조직은 코드 섹션 170에 따라 세금 공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 (2) 기빙블록 (The Giving Block)

기빙블록은 2018년 비영리단체가 가상자산 모금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자선단체, 대학 및 종교단체가 가상자산을 받아 목적에 맞게 송금, 환전, 기부영수증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가상자산 커뮤니티 내에서 기부자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지원한다. 단지 기부 플랫폼뿐 아니라 가상자산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가상자산 기부 관련 통계, 리포트를 발간하여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원하는 비영리단체가 가상화폐뿐 아니라 NFT를 통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2021년 기빙블록을 통해 모금에 성공한 가상화폐는 약 6,964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1,558% 성장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빙블록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부단체를 검색 또는 선택하여 그 기부단체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바로 기부하는 방법이다. 기부단체를 선택하면 기부단체의 개별 홍보 페이지와 전자지갑 위젯을 이용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및 금액을 넣고 가상자산을 송금하면 된다. 기부자가 기부영수증을 받고 싶으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다. 익명으로 기부하지만 기부단체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도 남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임팩트 인덱스 펀드(Impact Index Funds)를 이용하는 방법이다(Giving Block, n.d.). 기부자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기부하면 기빙블록에서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동일하게 나눠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선택하고 기부하면 이 영역에 포함되는 29개의 기부단체에 균등하게 지원금이 나눠지게 된다. 세 번째는 기부 약정(pledge)을 하는 방법이다. 기부 약정에 멤버로 가입하고 향후 수익의 일정 부분 또는 기부를 약정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스포츠 스타, 기업인, 가상자산 투자가, 기업, NFT 프로젝트 및 익명의 개인들의 약정과 트위터 계정, 기부 상태를 볼 수 있다.

기빙블록은 제미니(Gemini)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을 보관, 송금, 환전을 해주고 있다. 제미니를 통해 가상자산 지갑을 발급받고

고객확인(Know your customer, KYC)<sup>3)</sup>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할 수 있다. 기부단체가 원하는 가상화폐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기부단체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또는 장외 시장(over-the-counter, OTC)을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하여 기부단체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기도 한다. 장외시장 거래이므로 일정 조건이 맞아야 환전을 할 수 있고, 국내 기부 단체들이 송금을 받는 경우는 국내 송금 규정을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다.

기빙블록은 NPO들이 쉽게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을 시작하고 개별 홈페이지 없이도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상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가상자산 기부 커뮤니티들의 접근성이 높고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가상자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3) 체리(CHERRY)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은 이포넷에서 2018년 시작된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프로젝트이다(체리, n.d.). 체리는 2018년 12월 최소기능제품(MVP) 개발 이후, 이포넷이 두나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노블록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과제(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선정되었다. 체리 서비스는 기부금이 모금되고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스마트 계약<sup>4)</sup>을 통해서만 기부금이 자동 전달되기 때문에 기부금 유용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체리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사용자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기부단체와 개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리 포인트를 충전하여 필요할 때 자신이 선택한 단체나 개인에 기부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이다. 체리는 체리포인트라는 가상자산을 통해 기부를 진행한다. 체리포인트는 원화와 1:1 비율로 고정되어 1체리는 1원으로 환산된다. 체리포인트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진행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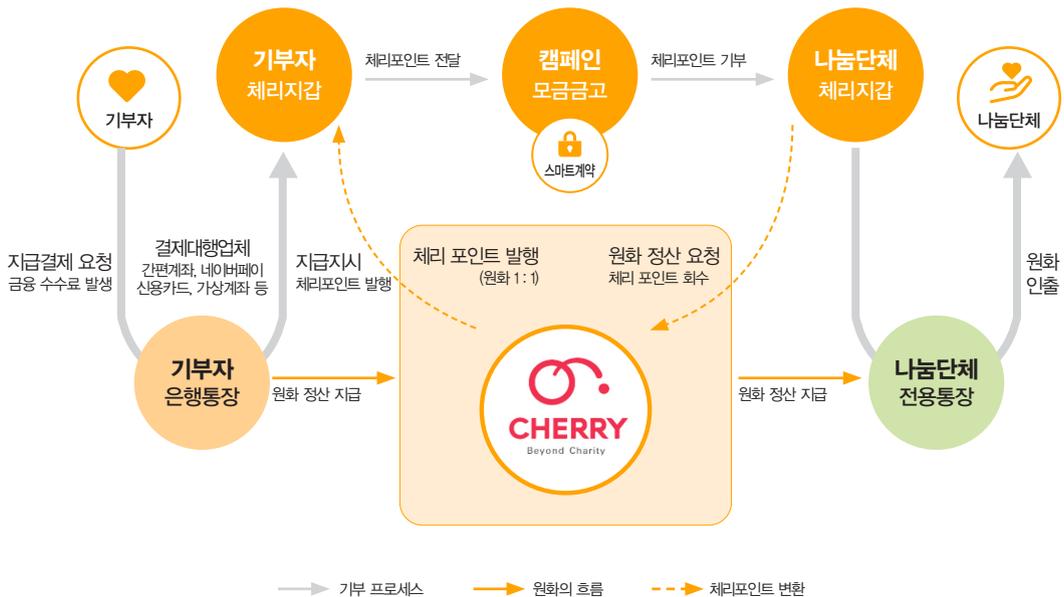
3) 고객알기제도의 줄임말로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본인여부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4) 분산 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약.

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없으며, 오직 체리 앱 내에서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체리에서는 체리포인트뿐만 아니라 영향력 포인트가 있는데, 일종의 인센티브로 체리 생태계에서 자율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향력 포인트는 체리포인트와 다르게 구매할 수 없으며, 양도할 수도 없다. 기부할 때만 얻을 수 있고 영향력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체리 플랫폼 내에서 투표권을 많이 가지게 되어 체리 생태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체리에 기부하면 체리포인트로 변환되어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 기부한 단체, 혹은 기부자의 관심 기반의 캠페인과 단체의 추천, 기부자가 참여한 모금함이나 캠페인의 주요 활동을 볼 수 있다. 기부의 진척도를 보여주고 상세 계획으로 어떤 분야에 돈이 지불되는지 상세하게 적혀있고, 나눔 발자국으로 현재까지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어 기부자 및 참여자에게 신뢰성을 높였다.

[그림 1]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 개념도



로드맵 : 수혜자 배분 및 사용 단계까지 블록체인을 확대 적용하여, 기부금의 end-to-end 추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출처: 체리 플랫폼 자료, 체리 기부 플랫폼 상품 소개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P2P 네트워크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sup>5)</sup>이며, 분산형 디지털 원장은 데이터의 무결성, 위·변조 방지를 증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위·변조 방지의 특징은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복지 시스템, 기부금 관리, 기부 조직 운영 등 서비스와 행정 분야에서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상자산을 활용한 기부

가상자산을 이용한 기부는 가상자산 시장 가격 상승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 업체 피델리티(Fidelity Investments Inc.)의 자선단체 피델리티 자선기금(Fidelity Charitable)은 2015년부터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고 있다. 2021년 가상자산으로 3억 3,100만 달러(약 1,700억원)를 모금하였으며, 이는 2020년 가상자산 기부액 2,800만 달러(약 340억원) 대비 11배를 웃도는 규모이다(Fidelity Charitable, 2022). 2021년 10월 피델리티 자선기금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상자산 소유자의 45%가 1,000달러(약 120만원) 이상을 기부하였다. 이는 주식 투자자 중 1,000달러 이상 기부한 비율인 33%를 웃도는 것이다(Fidelity Charitable, 2021).

기빙블록은 2022년 2월 지난해 가상화폐 기부 현황을 조사한 2021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The Giving Block,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기빙블록이 지난 2021년에 모금에 성공한 가상화폐의 총 가치는 6,964만 달러(약 807억 3,000만 원)로 이는 전년 대비 1,558% 증가한 금액이며, 기부자들의 평균 납입 액수로 살펴보면 1만 455달러(약 1,260만 원)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현금 납부자의 평균 기부액인 128달러(약 15만4,000원) 대비 82배 많은 것이다. 기부금으로 기부된 가상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비트코인과 USD 코인은 각각 36%와 7%로 집계됐다. 기빙블록의 기부자는 익명의 기부자부터 업계 리더, NFT 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절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부 활용 사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5) 분산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거래 기록을 분산 관리하는 장부

상자산은 가상화폐 및 NFT를 포함한다. 가상자산의 기부는 가상자산 자체의 기부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외의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서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 반면 한국은 아직 몇 가지 이슈로 가상화폐 및 가상자산을 직접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 직전에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한 경우,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한 경우, NFT를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기부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NFT 자체를 기부한 사례도 있지만 정확하게 운영에 대해 확인되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는 소개만 간단히 한다.

## (1) 가상자산을 법정화폐<sup>6)</sup>로 현금화하여 기부

국내에서 가상자산 기부는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하기보다는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기부단체가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받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윤주 외(2022)는 기부단체의 행정 부담과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그 이유로 설명한다.

먼저, 현금과 현물 이외 다른 자산을 기부 받은 경험이 없어 이로 인한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 많은 조직들이 현금 이외 다른 자산을 기부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계정이나 지갑 개설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동산, 주식 기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기부 역시 거래 시점 이후 자산가치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전,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으며, 매도 후 현금화하기까지 유동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번째로는 가치 변동성이다. 거래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대표로 가상화폐가 일종의 투기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인해 가상자산 수령 자체가 모금단체의 이미지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는 가상화폐를 매도해 현금으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모

6)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되는 화폐

금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용이한 수령 방법일 것이다.

이 외 또다른 이유가 있다. 법인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원화 시장<sup>7)</sup>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이후, 거래소 회원에 대한 자금세탁 감시 규정이 생겼다. 시행초기 단계에 보수적인 운영으로 법인의 경우 은행계좌와 연동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 계정 개설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거래소의 원화 시장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후 기부를 받은 경우는 기부를 받는 NPO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현금 기부를 받는 것과 동일하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환전 비율에 따른 최종 원화 금액을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할 필요는 있다. 가상자산을 기부하는 기관의 마케팅 목적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으로 기부하고 기부 즉시 현금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상화폐 기부에서 설명하겠다. 기부 전 현금화되는 주요 사례는 [표 4]에 요약하였다.

[표4]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판매수익금을 현금으로 기부한 사례

프로젝트	주요 내용
T&C재단의 NFT 아트 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 포도뮤지엄과 한국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전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에 나온 작품 13점을 NFT 아트로 제작 및 경매 재단 수익금은 굿네이버스에 전액 기부</li> </ul>
페이퍼 칠드런 (Paper Childr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이버더칠드런 코리아의 국내 최초 NFT 기부 프로젝트로 2022년 3월 4일 오픈</li> <li>수익금 천만 원 기부</li> </ul>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NFT 경매 수익금인 590더리움(약 1억 6천만 원)을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li> </ul>

7) 원화를 기본 통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원화로 사거나 팔 수 있는 시장.

## A.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하루만 지나도 시세가 크게 요동치는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 가상화폐의 보관 처리는 앞으로 기부단체들이 고민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있다.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NFT 경매 수익금인 59이더리움(약 1억 6천만 원)을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결국 손실을 방지하려면 현금 기부가 낫다고 판단했다” 하였고,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 측은 가상화폐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기부 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받는 것은 앞선 기부단체의 행정 부담과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가상자산의 인식으로 인해 활발하게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하더라도 바로 현금화를 원칙으로 세운 기부단체가 많은 만큼 가상자산의 도입은 아직 초입단계이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인애널리시스(Chainanalysis)가 지난해 발표한 ‘2021 가상자산 지형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가상자산 채택 지수는 전 세계 154국 가운데 40위였다. 전년 17위에서 13단계 하락했다. 가상자산 채택 지수는 인구 1인당 구매력 대비 블록체인상에서 가상자산을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국가별로 산출한다. 가상자산 활용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이어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케냐 순이었다. 미국은 8위, 중국은 13위에 올랐다. 한국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에 비해 실제 가상자산을 사업에 활용하는 정도는 낮다. 가상자산 기부에서도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국내는 양도세 도입 유예, 법인 계정 운영 한계, 가상자산 변동성 등의 이유로 아직 기부시장에서 가상자산의 도입은 시작 단계이지만 사용이 확대되면 다양한 방식의 가상자산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가상자산의 간접 기부 형태인 현금화를 통한 기부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가상자산은 P2P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매우 적으며, 송금 속도가 빠르다. 또한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발생하기에 은행이나 국가와 같은 중앙기관의 통제나 의존 없이 참여자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국제 송금은 전 세계 1만 1,000여개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세가 불안한 국가 혹은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송금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세가 불안한 일부 국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모금단체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 자금을 마련한다(임현우, 2022).

또한 몇몇 국가의 경우 가상자산의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고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하고 기부하는 경우 법정화폐로 교환할 때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현금을 기부하게 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바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기부하는 가상자산 가치의 전액을 기부로 인정받게 되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기부를 받는 단체도 같은 코인에 대해 더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단체 모두 가상자산으로 기부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가상자산을 팔아 달러로 기부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가상자산 이익(예: USD 100)에 대한 양도소득세(예: USD 10)를 납부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달러로 기부하게 되고 그 금액(예: USD 90)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바로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한 가상자산 평가액 전액(예: USD 100)을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가상자산을 이용한 직접 기부가 가능해지면 가상자산 기부자들은 더 편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개인에 대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이다. 개인 기부자는 아직 가상자산을 기부하나, 현금을 기부하나 경제적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유예가 되지 않았으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직접 기부의 유인이 있다. 기부단체의 주요 기부자층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법인 기부가 많은 단체의 경우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NPO들이 가상자산을 기부 받고 변동성 위험, 가상자산 보관 위험 등의 이유로 즉시 현금화하여 처리한다. 2017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포항 지진 이재민 성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키퀴를 기부 받았고, 희망브리지는 받는 즉시 원화로 환전하였다. 희망브리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즉시 원화를 환전한 이유에 대해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언급했다. “기부금에 손실을 끼쳐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시세 차익을 남겨 공공성을 훼손해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희망브리지는 지갑 주소로 보내온 가상화폐를 즉각 환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전달하며, 가상자산을 기부 받는 어려움을 밝혔다(이소연 외, 2021).

최근 해외에서는 NFT를 판매하여 판매 수익을 가상화폐로 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로 기부 받거나 NFT를 판매하여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것은 NPO의 입장에서 필요한 요소와 운영이 동일하다. 하지만 NPO에서 활용을 고려하여 가상화폐를 직접 받는 사례와 NFT를 판매하여 가상화폐로 받은 주요 사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겠다.

[표 5]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컴백얼라이브 (Come Back Al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출범한 우크라이나 국군 지원 NPO</li> <li>• 2021년 3월 11일 기준 컴백얼라이브는 50개국 2,000만 달러(약 27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접수하여 우크라이나 국군 약 100개 부대를 지원</li> <li>• 모금 금액을 무기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 훈련 및 장비를 제공하는 데 기부금 사용 제한</li> </ul>
피델리티 자선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부터 가상자산으로 기부금을 수령</li> <li>• 2021년 가상자산으로 1억 5,000만 달러(약 1,700억 원)를 모금</li> </ul>
세이브더칠드런 홀드호프 캠페인 (HOLDHOPE Campa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ID-19 이후 어린이들의 경제적 불평등 악화와 재앙적인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기부 캠페인</li> <li>• 기빙블록과 연계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여러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수령</li> <li>• 2021년 5백만 달러(약 7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기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금 모금으로 캠페인 확대</li> </ul>
우크라이나 크립토 도네이션 (Ukraine Crypto Do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3월 11일 기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지원하는 NPO</li> <li>• 러시아 침공 이후 120,000건 이상의 가상화폐 기부를 통해 6,380만 달러(약 8백 40억 원)를 모금</li> </ul>

유니세프 암호화폐 (Unicef Cryptocurrency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10월 유니세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li> <li>• 암호화폐 펀드를 통해 가상자산을 기금으로 보관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지원</li> </ul>
위메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고려대에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10억원 상당 기부</li> </ul>
포더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더리움(PAWTH) 가상화폐를 통해 동물 보호소와 복지 지원금 모금</li> <li>• 포더리움이 발행하는 PAWTH 토큰은 거래될 때마다 거래 수수료 4%가 부과</li> </ul>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트'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포항 지진 이재민 성금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권택을 기부받고 바로 원화로 환전</li> </ul>
월드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 오픈</li> <li>• 한국 블록체인 기업 퍼블리시와 협력하여 가상자산을 후원금으로 받고 NFT로 후원 증서를 발행</li> <li>• 현재는 이더리움으로만 후원에 참여 가능</li> </ul>

### A. 유니세프 암호화폐

2019년 10월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시켰다. 유니세프의 암호화폐 펀드는 유엔기구(UN) 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을 받는 펀드로 2019년 10월 9일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콘5(Devcon5)에서 출시를 밝혔다. 암호화폐 펀드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기금으로 보관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펀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된다(송화연, 2019).

크립토편드는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이 펀드의 첫 번째 기부자로 나서며, 기금은 유니세프 혁신 기금(UNICEF Innovation Fund)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프리스크립토(Prescripto), 아티스 랩(Atix Labs), 유토픽사(Utopixar)에 나누어 지급되었다. 이들 업체는 각각

블록체인을 이용해 사업 기획안을 관리하고, 투자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며, 커뮤니티 토큰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후 2020년 유니세프 크립토편드는 2020년 8개 아동 보호 관련 프로젝트에 125 이더리움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크립토편드는 7개국의 8개 기업 아피니데이터(Afinidata), 아바얀트라(Avyantra), 치레하(Cireha), 이데아시스(Ideasis), 오에스 시티(OS City), 스탯위그(StaTwig), 솜렝(Somleng), 유토픽(Utopic)에 투자해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시제품 개발, 프로토타입 테스트, 기술 규모 확장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8개 기업은 앞서 유니세프 혁신 펀드 10만 달러에 이어 이번 가상화폐 펀드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Unicef, 2020.6.).

[표 6] 크립토편드 투자 기업

기업명	국가	사업
아피니데이터	과테말라	• 부모 맞춤형 유아 교육 활동 제공하는 AI 기반 앱 개발
아바얀트라	인도	• 신생아 패혈증 조기 진단 시 의료진들이 필요한 데이터 활용 앱의 기능을 확대
치레하	아르헨티나	• 언어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이 상징물을 활용해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앱 3개국으로 확대
이데아시스	터키	• 불안함과 공포감 극복 해소를 위한 VR 프로그램을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WebVR로 전환. 추후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치료 위한 시나리오 개발 중
오에스 시티	멕시코	• 정부 기반의 공공거래장부를 개발, 아동교육 관련 학위 과정을 위한 1,000개의 블록체인 ID를 발급
솜렝	캄보디아	•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저비용 대화형 음성 대응 플랫폼 확장
스탯위그	인도	•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쌀 지원 공급망을 추적·개선하고, 코로나19로 증폭된 빈곤층의 식량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앱을 시범 운영
유토픽	칠레	• 교육용 게임을 VR에서 WebVR로 전환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종사자들이 각 가정 어린이들의 읽기 능력 평가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크립토펜드가 지원한 기업들은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코로나19 피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한다. 정부와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해 코로나19 주요 메시지를 각 지역에 전송하고, 빈곤 지역에 지급한 쌀의 공급 효과를 관리하며, 원격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로 인한 불안감 치료 등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해결하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유니세프 혁신 기금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40여 개 스타트업 기업 중 선발된 이번 8개 기업은 오픈 소스 기술, 솔루션 품질 등의 평가와 영향력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8개 기업은 자금 지원 외에도 비즈니스 성장 멘토링, 제품 및 기술 지원, 오픈소스·UX·UI 개발, 전문가 및 파트너와의 접근성, 솔루션 소개 기회 등을 지원받게 된다. 크리스 파비안 유니세프 벤처사업 고문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디지털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현재와 미래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라며 “전 세계 7개국에 위치한 8개 기업에 자금을 송금하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고 비용도 20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가치가 아주 짧은 순간에 이동했으며, 이전보다 저렴한 0.1% 미만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후원자와 기부자 입장에서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투명한 자금 흐름도 반가운 점입니다.”라고 밝혔다.

## B. 우크라이나 기부

2022년 3월 11일 기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지원하는 NGO는 러시아 침공 이후 120,000건 이상의 가상화폐 기부를 통해 6,380만 달러(약 8백 8십억 원)를 모금했다.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기부에 관한 글을 작성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TRON), 폴카닷(DOT), 도지코인(DOGE) 및 솔라나 주소를 통해 5,440만 달러(약 7백 5십억 원) 상당의 기부를 받았다. 이외에도 폴카닷(Polkadot) 설립자 개빈 우드(Gavin Wood)의 580만 달러(약 78억 원) 기부,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와 디지털 아티스트 박(Pak)이 만든 NFT 판매 수익금에서 나온 186만 달러(약 25억 원) 규모의 단일 거래, 약 20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크립토펜크 NFT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이더리움 계정으로의 송금 등 기관의 기부 행렬 역시 끊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NGO인 컴백어라이브도 수백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기부 받았다. 컴백어라이브는 2014년 출범한 우크라이나 국군을 지원하는 가장 큰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까지 50개국에서 2,0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접수하여 우크라이나 국군 약 100개 부대를 지원했다.

컴백어라이브는 모금 금액을 무기 구입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구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 훈련 및 장비를 제공하는 데까지만 기부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컴백어라이브는 2014년부터 약 1,000개의 열화상 카메라와 250개 이상의 UAV 이외에도 포병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아머(Armor)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1,500대의 태블릿을 제공함으로써 육군의 기술력을 높였다.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전시 상황으로 은행 시스템이 제한된 상태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기부는 유용한 지원 수단이 된다.

2021년 12월 CNBC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상화폐 기부금이 약 6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자 가운데 특히 MZ세대가 많았다고 전달했다. 팻 더피(Pat Duffy) 기빙블록 공동 창업자 역시 가상화폐 기부자 가운데 상당수가 MZ세대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욕구가 사회 환원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한국경제TV, 2021).

다만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수익 구간에 따라 최고 37%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세금 면제 혹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피델리티 자선기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기부자의 54%가 기부 동기로 세금 혜택을 언급했다(안상현, 2021). 따라서 일부 기부자 가운데 절세를 목적으로 기부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2023년부터 한국 역시 250만 원이 넘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 전망이 있었으나, 과세 시행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다(법제처, 2021).

### (3) NFT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기부

NFT는 예술계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대중화되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인에널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NFT 생성에 사용된 이더리움 계약 규모는 409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추산한 지난해 세계 미술 시장 규모(501억 달러)의 8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문일요, 2022). 기부를 위한 NFT의 활용은 초기 판매금액뿐만 아니라 재판매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도 기부를 위한 활용의 최초 유인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발행 이후에도 시즌별 시리즈 발행을 통해 기부 재원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NFT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한 것에 비해, 모금단체가 NFT를 기부 받는 데 아직 소극적이라 NFT의 판매 수익금을 기부 받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NFT를 판매하여 판매 대금 또는 일부 수익금을 받는 사례는 [표 7]에 약술하였다.

[표 7] NFT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기부

프로젝트	주요 내용
우먼포아프간우먼 (WAW, Women for Afghan Wom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간 최대 여성 인권단체 WAW는 가상자산과 NFT를 통해 모금</li> <li>•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직후 아프간 내 달러 송금을 봉쇄해 규제되지 않은 영역인 가상자산으로 모금을 진행</li> </ul>
알렉스의 레모네이드 재단 (ALSF · Alex's Lemonade Stand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과 투병 중인 환아들의 그림을 NFT 아트로 제작</li> </ul>
미국정신건강&블레이즈 캐츠 (MENTAL HEALTH AMERICA & BLAZED C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레이즈 캐츠는 무료 정신 건강 검진과 정신 질환에 대한 리소스 및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미국정신건강에 기부하는 NFT 프로젝트</li> <li>• 블레이즈 캐츠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익의 25%와 2차 로열티의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li> <li>• 현재까지 블레이즈 캐츠는 미국정신건강에 32만 달러 (약 4억 4천만 원) 이상 기부</li> </ul>
넥스트어스 (Next Ear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넥스트어스는 가상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li> <li>• 플랫폼 상의 모든 거래의 10%는 오션 클린업, 아마존 워치, 키스더그라운드, 씨 터틀스와 같은 자선단체에 기부</li> </ul>
오피어스재단 (Open Earth Found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3월 10일 탄소저감 NFT 예술(CarbonDrop NFT Art) 경매 및 모금 행사 진행</li> <li>• 오피어스재단은 탄소저감 NFT 예술을 통해 660만 달러(약 92억 원)를 모금하였으며, 모금 금액은 지구 환경을 위한 오픈소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li> </ul>

유니세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월 20일 전 세계 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프로젝트 모금을 위해 NFT 컬렉션 '패치워크 킹덤(Patchwork Kingdoms)'을 판매 발행</li> <li>• NFT 컬렉션은 총 1000개, 1개당 0.175이더리움으로 유니세프가 모금한 총금액은 175이더리움(약 54만 7천 달러)</li> <li>• NFT 판매로 마련된 기금은 유니세프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아동 교육 지원 이니셔티브 '기가(Giga)'에 투입, NFT는 발행 후 유통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 판매액의 20%를 기금으로 전달되도록 설계</li> </ul>
WATER.ORG, VAYNERNFT, STELLA ARTOIS & ART BLO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ter.org를 지원하는 Stella Artois의 CSR 이니셔티브를 위해 VaynerNFT는 NFT 자선 경매 진행</li> <li>• Stella Artois는 원래 NFT를 수집가에게 경매하고 수익금의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Water.org에 지원</li> <li>• Water.org는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자선단체로 경매를 통해 193천 달러(약 2억 6천만 원)를 모금 및 재판매의 2차 로열티도 Water.org에 기부</li> </ul>
아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거래소 아엑스가 NFT의 특징을 활용해 지속적인 기부 재원을 마련하는 순환 기부 시스템을 개발</li> <li>• 일회성 기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기부자, NGO, 기업이 순환하며 기부 재원을 지속 조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기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NFT포굿 (NFT4G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5월 1일 아시아계 혐오 반대 캠페인 'AAPI-88'을 진행</li> <li>• 아시아계 미국인 스포츠 스타와 인플루언서를 애니메이션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NFT로 만들어 판매</li> <li>• 캠페인 기간에 NFT 판매 수익을 포함해 총 8만 달러 이상을 모금</li> </ul>
누라헬스 (Noora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5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세요(Save Thousands of Lives)'라는 슬로건을 담은 NFT 영상을 제작 및 판매</li> <li>•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를 통해 450만 달러(약 62억 원)에 달하는 기금 적립</li> <li>• 인도와 남아시아 지역의 신생아 지원 사업에 사용</li> </ul>
세이브티그라이 (Save Tigr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티오피아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티그라이 지역민을 지원</li> <li>• 지역 여성들이 만든 공정무역 공예품을 NFT 아트로 만들고, 판매 수익을 구호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li> <li>• 2020년 11월 연방군과 지역 반군 간 무력 충돌로 내전이 발발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장</li> </ul>
워너비인터내셔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너비인터내셔널의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NvirWorld'를 통해 경매가 진행</li> <li>•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기부한 작품 'Dokdo Korea'에 대중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한국을 빛낸 영웅' 315명과 캠페인 참여자 500명의 성명 진행</li> </ul>
한국예술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예술조합 크리스마스 '음악예술자선경매'를 주최</li> <li>• 각 예술작품을 클레이튼 기반의 NFT 작품으로 발행 및 경매 진행</li> </ul>

## A. 오픈 어스 재단

오픈 어스 재단은 혁신과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순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솔루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재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 데이터를 위한 개방적이고 분산된 디지털 인프라인 기후 인터넷(Climate Internet)을 구축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의 파리 협정 준수 상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 어스 재단은 위성이미지를 통해 강 유역 범람지역의 초목 상태를 파악하거나 농업 용수, 지하수, 강의 수질정보를 분석하는 등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오픈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Open Eearth, n.d.).

오픈 어스 재단은 2022년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NFT 작품(#Carbon Drop NFT Art) 경매 및 모금 행사 진행을 했다(Open Earth, 2022). 렌더토큰(Render Token)의 지원을 받아 니프티 게이 트웨이(Nifty Gateway)가 주최한 이 모금 행사는 개방형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투명하게 기금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는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환경단체들이 가상 자산을 통한 기부금 조성을 기피하였다. 작업 증명(Proof-of-Work, PoW)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는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 가스 배출과 관련된 상당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 하지만 이더리움 지분증명(Proof-of-Stake, PoS) 프로토콜을 통한 발행은 네트워크의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 경매에 나온 예술작품은 약 60개의 탄소 상쇄권(Carbon Offset)<sup>8)</sup>을 받았고 이는 약 500톤의 탄소배출감소에 상응하는 것이다. 제공된 탄소상쇄권은 페루의 산림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마드레 데 디오스(Madre de Dios)를 지원했다. 오픈 어스 재단은 이 경매를 통해 660만 달러를 모금하였으며, 모금액은 지구 환경을 위한 오픈소스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Fvckrender et al., n.d.).

8) 탄소상쇄권(carbon offset)은 나무를 심거나 보호하는 사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이 탄소관리기업이나 산림관리기업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내면, 특정 숲의 탄소흡수량을 해당 기업 명의로 돌려 그만큼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B. 우먼포아프간우먼

NFT를 이용한 가상화폐 기부금 전달은 해외 자금줄이 막힌 국가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동한다. NFT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한 일부 국가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모금 단체들은 해외 자금을 가상자산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경기 침체와 여성 억압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달러 송금 제재를 피해 NFT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Womenforwomen, n.d.).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단체 '우먼포아프간우먼'은 아프가니스탄과 뉴욕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전념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우먼포아프간우먼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FT 회사인 Bookblocks.io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Bookblocks.io는 2021년 10월 5일에 NFT를 발행하여 우먼포아프간우먼에 제공하였다(Roy Billington, 2021).

Bookblock.io에 따르면 우먼포아프간우먼이 기획한 NFT의 모델은 여성 인권의 선구자인 루이자 메이 올cott(Louisa May Alcott, 1832~1888)이었다. “그녀는 많은 유명한 글을 통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며, 열렬한 페미니스트, 차별 폐지론자, 여성 참정권 지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평등을 찾도록 돕는 데 전념하는 우리의 자선 활동에 완벽한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NFT는 두 개의 다른 나비 날개를 가진 루이자 메이 올cott의 초상화를 기초로 만들어졌다. 우먼포아프간우먼은 2021년 11월 NFT 모금으로 95만 달러(약 11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판매 초기 수익금과 함께 이후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5%도 우먼포아프간우먼에 기금으로 전달된다. 우먼포아프간우먼은 2021년 10월 첫 NFT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다(문일요, 2022).

### C. 유니세프 75주년 NFT 판매

유니세프 75주년을 기념해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이자 예술가인 나디에 브레머와 함께 패치워크 킹덤스(Patchwork Kingdoms)로 불리는 NFT 컬렉션을 제작했다. 이번 컬렉션은 UN이 출시한 데이터 기반의 NFT 작품 첫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이더리움 재단과 스노크래쉬, CfC 세이트모리츠, 메타굿이 지원하였다. 21개국 28만 개의 학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컬렉션의 각 작품은 ‘학교’를 상징한다. 연결된 학교를 상징하는 ‘위’ 세계와 연결되지 않은 학교를 상징하는 ‘아래’ 세계가 있는 가운데 ‘아래’ 세계의 열은 색 사각형은 연결 부족을 의미하며 ‘위’ 세계의 활기찬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번 NFT 컬렉션은 학교 연결에 대한 기가(Giga) 라이브 지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어린이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인터넷 기술의 필요성과 이미 연결돼 실현되는 곳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다. 제작자 나디에 브레머 역시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을 어린 시절의 경이로운 느낌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가 라이브 지도를 아트워크화하며 기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로 인터뷰하며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Unicef, 2021).

초기 제시된 NFT 작품 가격은 하나당 0.175이더리움으로 유니세프는 2021년 11월 23일 사전 구매 등록인 ‘화이트리스트’를 진행하여 7,000개 넘는 계정 구매 신청을 확인하여 사실상 완판을 예고했다. 유니세프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예술가인 나디에 브레머에게 부여하는 1개를 제외한 999개를 추첨을 통해 판매하였다. 유니세프는 75주년 NFT 판매를 통해 총 74만 달러(8억 8,400만원)를 모금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1,000개 NFT는 55만 달러 (약 6억 5천만 원)에 판매됐으며 4건의 한정판 및 사전 판매 NFT는 14만 달러 (약 1억 6천만 원)에 판매됐다고 전했다(Coinness, 2021). 또한 이번 유니세프 75주년 NFT 작품 구매자들은 기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스냅샷(특정 시점에 특정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갖게 된다. 이에 2차 경매 플랫폼으로부터 20% 로열티를 받아 5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문일요, 2022).

유니세프는 75주년 NFT 판매 수익금을 기가(Giga) -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유니세프와 세계전기통신연합이 추진하고 있음 - 와 유니세프 이노베이션 사무소의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기가의 목표는 100만 개 이상의 맵핑을 통해 3

천 개 이상의 학교를 연결해 7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 전했다.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Fore)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발표 당시 “유니세프는 75년간 어린이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회라면 함께할 것입니다.”라며 “전 세계는 점점 연결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린이 13억 명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의 공평한 온라인 학습 기회를 위해 유니세프 이노베이션 사무소와 함께 전 세계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하였다. 또한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유니세프의 첫 번째 글로벌 NFT 컬렉션 출시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유니세프의 지속적인 NFT 발행의 의지를 밝혔다.

자금 유치의 관점에서 발행 기관은 NFT 시장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초기 자금 조성 이후에도 2차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NFT의 경우 NFT 예술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의미를 기부자들에게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NFT의 판매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NFT 자체를 기부 받는 경우도 있다. 월드비전의 경우 손흥민 NFT를 기부 받아 가상자산을 기부하는 후원자 중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는 것보다 NFT로 기부를 받는 경우는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NFT 현물기부에 대한 가치 산정이다. 시장성이 낮은 NFT 시장은 예술품과 같이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NFT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을 NPO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해킹, 분식 등의 위험이 있고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NFT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NFT는 아직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의 문제, 지식재산권 보장의 문제, 원작자의 경제적 피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NFT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초자산에 대한 일종의 등기권리증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과연 NFT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NFT의 거래 방식은 저작권 라이선싱과 법적 환경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실제로 거래되는 대상(object)이 라이선싱의 경우 각종 ‘권한(rights)’ 그리고, NFT 거래의 경우 특정 ‘소유권(ownership)의 일부’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NFT 판매자는 ‘사용권 및 거래권’만 판매한 것으로, NFT 구매자의 경우 ‘소유권’을 양수 받은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정영훈, 2022).

가치 산정의 문제, 보관 및 관리 문제, 인식과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고려하면 NFT를 직접 기부 받기 위해 법률, 회계, 세무 전문가들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NFT는 새로운 기부 활로를 만들고 프로젝트의 의미 전달 및 기금 모금의 효과와 함께 기부자에 대한 사후적 커뮤니티 관리에 유용한 수단이긴 하나 아직까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 3. 기부 참여 증명 및 리워드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며, 고유성과 희귀성을 갖춘 디지털 방식으로 이러한 소유권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NFT는 소유권 표현 이상으로 아티스트, 음악가, 작가와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작품의 복사본을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는 로열티를 통합하여 NFT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로열티는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여 작품이 2차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제작자는 거래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NFT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단체에서 NFT 작품을 판매하는 방식 이외에 자체 NFT를 발행하여 기부 참여 리워드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알고랜드, 2021). NPO는 NFT 발행을 통해 프로젝트의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첫 판매 이후 2차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원저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추가적인 기금 마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부 참여 리워드 사례는 [표 8]에 약술하였다.

[표 8] 기부 참여 NFT 리워드 사례

프로젝트	주요 내용
메이시스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시스(Macy's)는 2021년 11월 95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주제로 NFT를 발행해 판매 수익금을 자선단체 메이커어워시재단(Make A Wish)에 기부</li> <li>• NFT 토큰 누구나 무료 발행, 다만 메이시스는 2차시장의 모든 재판매에서 10%의 수수료를 보장</li> </ul>
업비트 우크라이나 기부 리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회원 902명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1,5918 비트코인과 22,7495 이더리움을 우크라이나에 기부</li> <li>• 두나무는 2022년 3월 디지털 자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업비트 회원들에게 기부 증명 NFT를 지급</li> </ul>
사단법인 프렌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9월 저개발 국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한 기부 캠페인</li> <li>• 캠페인을 통해 1004개의 NFT를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지갑에서 NFT 확인 가능</li> </ul>

### A. 메이커어워시재단 NFT 무료 발행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Macy's)는 2021년 11월 95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주제로 NFT를 발행해 2차시장에서 유통시 발생하는 판매 수익금을 자선단체 메이커어워시재단(Make-A-Wish)에 기부한다 밝혔다. 2021년 11월 25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풍선 디자인의 이번 컬렉션은 95번째 퍼레이드와 동시에 9,510개의 NFT 한정판 컬렉션을 공개한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NFT 컬렉션을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의 NFT 마켓을 통해 발행하였다(Bill Haddad, 2021).

NFT 토큰은 누구나 무료로 발행 가능하다. 다만 메이시스 백화점은 2차시장의 모든 재판매에서 10%의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해 각 토큰의 스마트 계약을 구성하였으며 수익금은 메이커어워시재단에 기부되어 영구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 즉, NFT 발행에 참여하면 무료로 NFT를 발행받아 소유하거나 재판매 활동에 참여하면 잠재적인 수익과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NFT는 클래식(Classic), 레어(Rare), 울트라 레어(Ultra Rare)를 포함해 다양한 등급별로 제공된다. 이 중 울트라 레어 카테고리의 경우 특별 경매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100%를 메이커어워시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tacy Elliott, 2022).

NFT는 폴리곤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Sweet NFT 마켓 플레이스에서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메이시스는 이미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되어 30일까지 10개의 에픽 메이시스 퍼레이드 NFT(Epic Macy's Parade NFT) 특별 자산 경매도 진행한다. 판매 수익금은 메이커워시 재단에 기부되는 구조로 무료로 제공되는 NFT와 더불어 경매를 이용한 기부 활동에도 NFT를 활용하고 있다(Macy's, n.d.).

메이시스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NFT 기술을 사용, 메이시스는 전통적인 방법이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선 기부의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커워시미국의 자넬 홀라스 마케팅 부사장은 “사람들은 기부를 인증하는 배지처럼 자선 활동을 하는 대가로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한다”며 “NFT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B. 두나무, 우크라이나 기부 증명 NFT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구호의 손길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망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과 NFT 기부를 통해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자청했다. 한국 역시 도움을 함께하고 있다. 전쟁 발발 한 달 이내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회원 902명은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인 1,5918 비트코인과 22,7495 이더리움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이형두, 2022).

이에 두나무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디지털 자산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업비트 회원들에게 기부 증명 NFT를 지급한다 밝혔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디지털 자산 기부 캠페인은 지난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업비트에서 진행하였으며, 총 902명의 업비트 회원들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기부했다. 이와 관련, 두나무는 4,800만 원 상당의 출금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기부 증명 NFT 발급을 약속한 바 있다. 두나무는 기부에 참여한 업비트 회원 중 수령에 동의한 800여 명에게 기부 증명 NFT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 증명 NFT는 발달장애 아티스트 박병준 작가의 작품 <평화의 파랑새>로 진행해 더욱 의미 있다. <평화의 파랑새>는 소녀가 날린 파랑새가 다른 파랑새를 만나고, 여러 마리의 파랑새가 모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

았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기부 증명 NFT로 지급함에 따라,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재능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증명 NFT는 기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기부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과거 MZ세대를 중심으로 ‘굿굿즈(Good Goods; ‘착한 상품’을 뜻하는 굿굿즈는 판매 수익의 일부가 좋은 일에 쓰이는 상품)’ 열풍에 이어 MZ세대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NFT가 가진 희소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굿굿즈로 화제를 모은 대표적인 단체가 유니세프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every child 반지’를 정기 후원 리워드로 선보이며 20~30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옷핀을 구부려 놓은 듯한 독특한 디자인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셀럽들의 동참도 영향을 미쳤다.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이 반지를 낀 사진이 퍼지면서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는 ‘북극곰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정기 후원자에게 북극곰 팔찌와 파우치를 보내준다. 또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들에게는 스테인리스 빨대를 지급했었다(문일요, 2019).

NFT 리워드 역시 같은 이유로 MZ세대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NFT를 통한 기부 참여 리워드는 해외 단체뿐 아니라 국내 단체들 역시 활동도가 높아지는 분야이다. 자금 유치의 관점에서 발행 기관은 NFT 시장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초기 자금 조성 이후에도 2차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NPO의 경우 영리 기업에 비해 재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NFT 기반 리워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리기업처럼 큰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온·오프라인 상의 혜택 등을 통해 NFT를 소유한 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관 및 단체들이 NFT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핵심 고객층을 중심으로 하되 커뮤니티를 통해 그 연결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NFT와 관련된 굿즈 등을 제공하고 정품 확인 및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MZ 소비자의 감정과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와 혜택(리워드)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굿굿즈(Good Goods)의 리워드만 받아낸 뒤 다음 달 바로 후원을 취소하는 부작용과 함께

NFT는 자산으로 거래 및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NFT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에 따르면, NFT의 원작자에 대한 피해를 전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원작자의 동의 없는 NFT 발행으로 원작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NFT 발행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원작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콘텐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NFT 발행에 활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한 픽셀아트 작가의 작품이 해외 NFT 거래소에서 재편집·활용되어서 NFT 발행 후 수익 원대에 판매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원작자 동의 없는 2차 창작물은 물론 원작물 자체를 타인이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NFT를 발행한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정영훈, 2022).

#### 4. 기부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가상현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내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 안전, 저비용, 다양성 담보, 평등과 공정, 문화향유권의 장점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친환경, 안전, 저비용은 가상공간에서 이벤트를 개최하면 저비용으로 전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람이 가능하고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성 담보는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나 지역, 언어라는 물리적 제한 때문에 진정으로 다양한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물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한 확장이 가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활동할 수 있다. 평등과 공정은 사용자들의 투표에 의해 가상세계의 규범을 결정하도록 하여 특권층이나 재산 보유자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며, 문화향유권은 박물관의 공간상의 제약이나 훼손 방지 등의 이유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공간 제약 없이 무한대로 관람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한라산 등반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까지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진 메타버스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NPO에서 비대면 채널 활용은 초기단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NPO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변화에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8.2%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25.9%는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답하였다(김성주, 이영주, 정민정, 2021).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증가가 NPO의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현재 다양한 영리 기업들이 비대면 증가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 비해 NPO 분야에서 비대면의 전환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부를 위한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는 LG전자, 유한김벌리 등 영리 기업에서의 이벤트성 활동 외에 2021년 11월 진행된 그린피스의 메타버스 ‘제페토’에 레인보우 워리어 호 맵 개설이 있다. 이들 모두 이벤트성 활동으로 기부를 위한 메타버스의 활용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이벤트성에서 벗어나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부 플랫폼들이 개설되고 있다.

베타버스(Betterverse)는 기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있다. 베타버스는 자선단체를 선택하여, 나무 심기, 탄소 절감에서 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 기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부 이후 NFT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아직 진행 전으로 2023년부터 메타버스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베타버스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런칭되면 기부 참여자는 가상자산의 기부, 기부를 통한 보상,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기부 활동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이 활발하지는 않다. 다만 많은 단체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베타버스가 진행하는 것과 같이 커뮤니티 역할과 함께 NFT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 기부 및 비영리 활동은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메타버스 활용 사례

프로젝트	주요 내용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GreenPeace Rainbow Warr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리어호는 1978년부터 남극해와 북극해, 아마존강 등에서 환경 파괴 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기후 변화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와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의 대표적인 환경 감시선</li> <li>• 제페토상의 '그린피스 환경 감시선'은 실제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가상세계에 옮겨놓은 것으로 돛을 펼치고 항해하는 모습과 헬리콥터 착륙장, 구명보트 거치대 등 선박 외형은 물론, 선장실과 조타실, 회의실, 복도, 조리실, 식당 등 선박 내부까지 실제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구조 그대로 설계</li> </ul>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전자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에 LG 생활가전 체험존을 운영</li> <li>• LG전자는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인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에 약 21만 달러(한화 2억 5천만 원)를 기부</li> </ul>
월드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난민촌을 직접 체험해보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li> </ul>
롯데 컬처웍스의 해피앤딩 (Happy A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피앤딩 영화제작교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의 일환</li> <li>• 총 16주의 커리큘럼을 통해 영화 기획부터 완성, 편집, 제작, 상영까지의 전 과정을 교육받고 실습 진행</li> <li>• 2022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6년간 수도권권의 19개교 507명의 학생이 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li> </ul>
유한킴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른 숲을 테마로 한 가상세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제페토 맵'을 오픈</li> <li>• 맵에 있는 거대한 나무 '숲'의 꼭대기에 올라가 인증사진을 찍고 제페토 내에 업로드하면, 인증한 수만큼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유한킴벌리가 제품 1만 개를 기부</li> </ul>
트리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리노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연말 행사 '쉐어 투게더'를 진행하여 부산·경남지역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li> </ul>

## 5. 소결

여러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PO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메타버스의 활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은 분산 원장을 이용하여 기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NPO의 기부의 투명성과 부합하여 꾸준히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부 플랫폼상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의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기부와 관련된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국제적인 대형 NPO부터 특화된 소규모의 NPO까지 다양한 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부는 가상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증가한 소득을 이용한 가치 실현 및 기부 세금 혜택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형 국제 기부금 단체들도 가상자산 기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기부 메뉴를 만들고 SNS에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수익이 확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기부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바로 기부하는 것이 실질적 세금 혜택이 높아 가상화폐를 직접 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금을 송금할 수 없는 지역으로의 가상자산 기부도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크라이나 지원 기부를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가상자산을 모금하고 가상자산으로 송금하였다. 하지만 국내 NPO의 경우 가상자산의 변동성, 행정 부담 및 법인 가상화폐 현금화의 한계로 아직은 가상화폐를 원화로 현금화하여 받는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로 받더라도 바로 현금화하여 바로 기부금 가치를 원화로 확정하고 기부의 세무적·회계적 가치 평가를 확정 짓는다.

NFT 시장이 성장하면서 NFT 발행 아티스트·단체가 NFT의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NFT는 발행 즉시 판매 수익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2차 판매가 일어나면서 일정 비율이 NPO에 지급되도록 프로그래밍하면 NPO들에게 추가적인 기부 원천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FT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 받는 형태도 있지만 기부단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NFT를 아티스트와 사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각 기부단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NFT를 통해 표현하고 그 상징성과 의미를 알리는 효과도 있어 NFT의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것 외에 NFT 자체를 기부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가상자산 변동성 및 규제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았다.

굿굿즈 열풍과 NFT의 희소성으로 NFT를 기부 참여 리워드로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을 고려하면 이를 기부증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NFT를 발행하여 기부증명서로 사용하는 NPO들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NFT를 받고 기부를 취소하는 굿굿즈의 문제뿐 아니라 NFT 자체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NFT가 컬렉션으로 활용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기능이 추가되면 ‘법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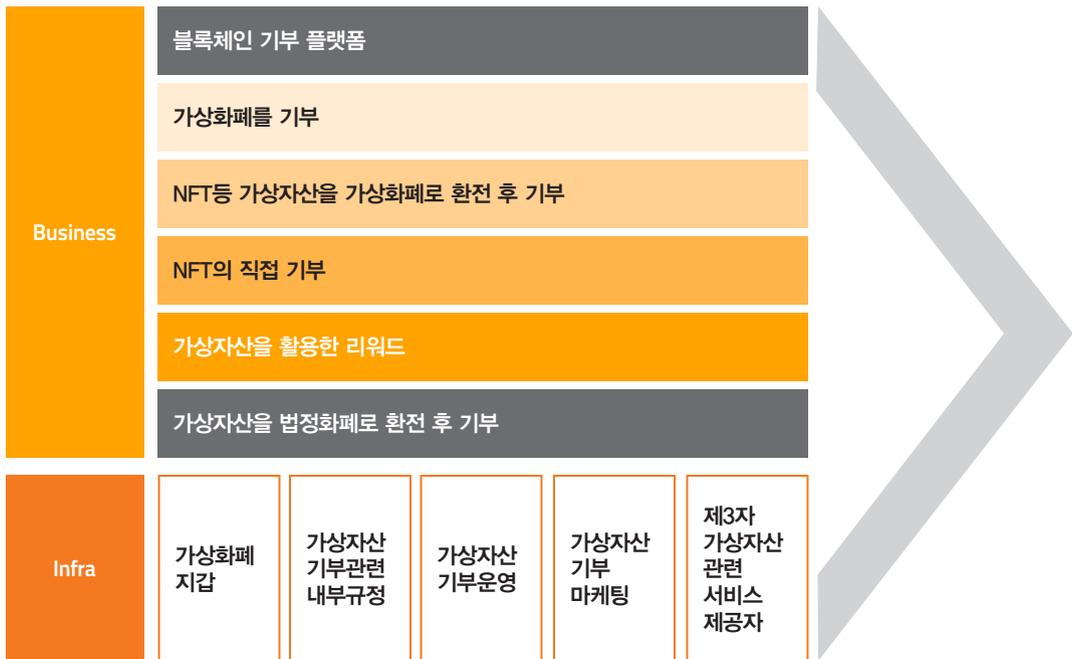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인해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하였고 디지털 가상환경이라는 면에서 가상자산 기부, NFT 등의 활용이 쉬워 NPO가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직 대부분의 단체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벤트성 활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모금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채널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 Ⅲ. 가상자산을 모금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요건

이전 장에서 현재 NPO들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NPO들은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NPO 담당자들은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실제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2022년 3월에 개최한 ‘비영리를 위한 가상화폐와 NFT 활용 사례’ 온라인 세미나 이후 가상자산 기부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들어왔다(장윤주, 2022).

질의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반 기부 실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장에서 알아본다.

[그림 2] 가상자산 기부 밸류체인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기부에 활용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가.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 나. 가상화폐의 기부
- 다. NFT 등 가상화폐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로 환전 후 기부
- 라. NFT 등 가상화폐를 제외한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 마.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리워드로 활용
- 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 후 기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상화폐 지갑, 가상자산 관련 규정, 기부 운영, 기부 마케팅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첫번째 유형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부 플랫폼은 정보의 비가역성, 투명성 등을 이유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진행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부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NPO에서 직접 운영한다기보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우드 기부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어 대부분의 개별 NPO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NFT 기부와 사업적 진행 영역이 달라 이 장에서는 따로 소개하지 않겠다. 이 장에서는 가상화폐나 NFT를 기부 받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준비 내역들을 살펴본다. 또한 가상화폐를 기부 직전 원화로 환전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NPO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기부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부를 받은 NPO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가상화폐로 환전 후 기부 받는 것과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것은 같은 것이므로 가상화폐 기부로 통칭할 수 있다. 물론 기부 프로모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타겟하는 고객이나 마케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NPO 운영 및 인프라를 고려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기부’ 하나로 합쳐서 설명하겠다.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 후 기부하는 것도 NPO의 입장에서는 법정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인프라와 운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프라 및 운영 방법의 차이는 따로 이 보고서에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새로운 기부자 그룹으로 마케팅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므로 타겟하는 기부자층에 대한 마케팅은 달라져야 한다.

가상화폐를 NPO가 기부 받기 위해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인프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 다른 사업 유형은 가상화폐 기부를 위한 인프라와 달라져야 하는 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겠다.

## 1. 가상화폐의 기부

가상화폐 자체를 기부 받거나 NFT 등의 가상자산을 판매 후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는 경우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기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술 및 인터넷, SNS 문화의 발전으로 기부의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NPO에서 가상화폐로 기부를 받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1) 내부 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의해야 하는 것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Gelatt, 1962).

오랑우탄 아웃리치(Orangutan Outreach)는 성공적으로 가상자산 기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이다. 2020년 NFT 프로젝트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에서 169 이더리움(당시 약 4억 6천만 원 상당 가치)를 받은 이후 2021년에는 2020년의 모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모금했다.

오랑우탄 아웃리치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는 것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내부 합의의 과정이었다. 2020년 처음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전에 내부의 이사회 멤버들이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내부 교육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가상자산 기부의 이해를 높이고 내부 합의에 도

달하여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The Giving Block, n.c.d).

가상자산 기부를 받는 첫 단계는 현재의 상황과 해결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목표가 조직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특히 가상화폐의 기부는 테라·루나 사태, 해킹 등 사건·사고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NPO에서 도입을 주저하기도 한다. 가상 자산의 부정적 부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까지 두루 이해한 후 이것이 NPO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기존의 금융 거래 방식과 다른 가상화폐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운영 시 위험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 교육, 논의를 동반한 내부 합의의 달성이 필요하다.

## (2) 내부 규정 점검

가상자산 기부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부 합의가 되었다면 이제 NPO 내부 준비를 해야 한다. NPO에서 가상자산 기부를 도입할 경우 현재 NPO 내부 규정에서 신설, 수정, 삭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 A. 비현금성 기부 규정

가상화폐 기부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의 기부와 같은 비현금성 기부로 볼 수 있다. 조직에서 비현금성 기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가상화폐의 평가, 회계 처리, 기부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 적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시장가격의 변화가 있는 주식, 채권을 기부 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의 경우 가상자산 기부의 가치 평가 처리 부분은 쉽게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단체는 주식 포함 현물을 기부 받은 경험이 없어 가상화폐로 기부 받는 것을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가상화폐 기부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다.

## B. 가상자산 기부금 관리 규정

가상자산은 전자지갑이라고 불리는 계정을 사용하여 거래한다. 지갑이라고 명명하여 물리적으로 가상자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위한 개인키를 보관하여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개키는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번호라고 생각하고 비밀키는 은행계좌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계좌 비밀번호를 알면 자금을 인출하거나 쉽게 이체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키가 유출되면 가상자산을 탈취당할 수 있다. 전자지갑은 은행계좌처럼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운영으로 인해 탈취당한 자산은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상자산 기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비밀키를 담은 전자지갑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부 받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필요시 법정화폐로 어떻게 환전할 것인지 미리 내부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보다 종류가 많다. 2022년 9월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179종에 달한다. 상장되어 있지 않은 가상화폐는 더 많다. 기부를 받는 가상화폐의 종류를 많이 허용하면 관리와 현금화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가상화폐의 종류를 너무 적게 하면 잠재적인 가상화폐 기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다른 가상화폐로의 환전 비용을 발생시켜 기부 참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미리 어느 가상화폐를 받을지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와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기부 가능 가상화폐를 선정할 때 미국의 가상자산 신용평가 회사(기관)인 '와이즈 레이팅스'의 디지털 화폐 평가 등급을 사용한다. 평가 등급은 가상자산의 기술력(Technology), 수용성(Adoption), 위험성(Risk), 모멘텀(Momentum)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모금회는 디지털자산의 안정성,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B 등급 이상의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장윤주, 2022).

가상자산 또한 현금 또는 비현금성 기부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법정 신고 절차가 요구된다. 이때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 기부금 영수증상 금액 결정,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비용을 기부로 포함할지 아닐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기부 받자마자 현금화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한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필요 시에 환전해서 사용할 것인지 등의 의사 결정과 이에 따른 세부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환전 시기, 환전 방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정화폐 환산 가치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자산 기부금 회계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가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C. 익명 기부에 대한 규정

대부분의 NPO는 익명 기부에 대한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거액의 익명 기부를 심사하고 기부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2021년부터 익명 기부도 향후 실명 기부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익명 기부를 받을 당시에는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 기부는 계좌나 카드 등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기부되지만 가상자산 기부는 지갑을 통해 송금되는 형태이고 이 지갑은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부 단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경우를 고려하여 익명 기부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2020년 다크사이드라는 해킹 단체가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여 두 자선 단체에 익명으로 1만 달러씩을 송금하고 이를 다크넷에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

실제로 가상자산 기부에 있어서 익명 기부의 비율은 꽤 높다. 정확한 통계치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자들의 정보를 살펴보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부 프로젝트 HODLHope(hodlhope.org)는 약 7백만 달러(약 9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모금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백 8십만 달러(약 54억 원)는 익명으로 기부된 금액이다. 최고 10만 달러에서부터 몇 센트에 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를 기부했다. 이들은 익명으로 기부하여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 선한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3은 HODLHope의 홈페이지에 있는 익명 기부자 리스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내역에는 기부자들이 남긴 메시지와 가상화폐 종류, 기부 금액 및 대략적인 달러 환산금액이 적혀 있다. 자신들이 기부하고 싶은 대상, 감사의 표현 등을 자유롭게 남긴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익명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기부자들을 위해 익명 기부에 대한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3] HODLHope 익명 기부자 기부 내역 일부 발췌

Top Donors	
Anonymous	donations for \$3,845,694
I would prefer to hand over the money myself, but I trust that it is in g...	100046.7614 USDC (\$99,785)
For the Ukraine Crisis Fund. From: Meta K, Mookie, Blue, B8B, Christine...	28.5 ETH (\$93,373)
for Ukraine	4005866.8025520965 GUSD (\$42,478)
Converted 30 ILV to 7.38 ETH to date it	7.38 ETH (\$34,385)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4 ETH (\$10,373)
for Ukraine from Victor Shaburov	10004 USDC (\$10,001)

참조: <https://hodlhope.org/home>

### (3) 운영

이제 실제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자. 규정 및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실제 실행 전에 규제 관련 내용은 한번 더 담당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A. 가상자산 지갑

기부를 받기 위해 은행계좌가 필요한 것과 같이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위해 단체는 가상자산 지갑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지갑은 서비스 제공 회사가 많기 때문에 실명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 확인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거나 확인되기 어려우므로 법인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 환전 등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 법인 실명이 확인된 가상자산 지갑(계정)을 여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 지갑 개설은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하는 것을 기초로 설명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법인 계정 개설 안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원화를 기초로 한 가상자산 거래, 원화 입출금, 연결 은행 계좌 등록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21년 12월 2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특금법에 따라 서류 제출과 심사 요건을 강화했거나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0월 현재 법인 계정 개설에 대한 국내 원화 시장 거래소 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거래소: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내부 심사 정책을 보완 중이어서 2022년 10월 기준 법인 계정의 서류 심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가이드 라인이 완료되면 법인 계정을 개설할 수는 있으나 원화 입출금, 연결 은행 계좌 등록,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는 시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B 거래소: 2021년 11월 이후 법인의 신규가입 및 거래는 불가하다. 2021년 11월 이전 가입된 법인 회원은 거래를 위해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자산 출금을 할 수 있다.

C 거래소: 홈페이지에는 법인회원 가입에 대해 법인 대표자 혹은 대리인의 은행 계좌를 법인 계정에 연결할 때 회원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원화 인출 및 가입 절차 확인 요청을 보냈으나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D 거래소: 법인의 은행 계좌와 연동이 되지 않아 현재는 법인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E 거래소: 직접 고객센터로 필요 서류를 들고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 계정을 열 수 있다. 가상자산의 인출은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하나 원화 인출은 불가능하다. 거래소의 정책이 계

속 바뀌고 있어 고객센터와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기를 권한다.

〈참고〉 E 거래소 법인 계정 개설 시 필요 서류

(※ 모든 서류는 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되어야만 정상 접수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 주주명부
  - 최대 지분을 보유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이 명시 및 발행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실제 소유자는 최종 자연인으로 확인되어야 함(법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 법인과 E 거래소 회원 가입 신청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직전년도 재무제표
- 법인인감 지참: 법인인감 지참 불가 시 E 거래소 고객센터로 문의
- OTP 수신용 휴대전화 번호의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휴대전화 번호 전부 노출
  - 법인 명의를 아닌 경우 명의인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OTP 수신용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용) 필요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대표자용)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명함
  - 대리인 재직 증명서

법인 계정을 열어주는 거래소에서 계정을 열면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거나 가상화폐를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없다. 가상화폐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NPO는 법인 계정을 열어주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계정을 열거나 법인이 지갑서비스를 통해 직접 가상자산 지갑을 열어야 한다. 개별 법인이 지갑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해킹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콜드월렛<sup>9)</sup>에 보관하거나 수탁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법인회원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자금세탁 관련 잠재적 위험 증가로 인해 은행은 원화를 입출금할 수 있는 실명 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 후 입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22년 4월 S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었다(문정은, 2022). 이는 시범적으로 심사 후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것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위에 지속적으로 법인도 가상자산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법인 계정에 대한 부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김하늬, 2022).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국내 NPO는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경우 기부자가 가상화폐를 원화로 환전한 후 받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기부 생태계에 접근하고 있다.

## B. 가상화폐 기부금 관리

현재 법인이 가상화폐 기부금을 받는 경우 원화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받은 기부금을 가상화폐로 보관, 관리,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9) 인터넷에 연결 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 (a) 가상자산 기부금 보관 관리

가상자산 지갑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상자산 지갑의 개인키 관리는 중요하다.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위해 온라인 지갑을 열어서 사용한다면 해킹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위험이 높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은 가상자산을 온라인 지갑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인 콜드월렛에 담아 보관한다.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도 콜드월렛이 분실 파손될 위험이 있어 여전히 가상자산 보관에 위험은 존재한다.

특히 투자금, 기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는 법인이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는 경우,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사용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 이러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는 코인베이스(Coinbase), 제미니(Gemini), 비트고(Bitgo) 등의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피델리티, 본토벨(Vontobel), US뱅크와 같은 금융기관 또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회사가 함께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진출한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탁 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상자산의 보관뿐 아니라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OTC 서비스, 수탁자산 운용 서비스, 세무 회계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NPO는 현재 가상자산 지갑이 거래소에 개설되었는지 여부, 거래 규모, 내부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접 자산을 관리하거나 NPO의 목적에 맞는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수탁한 자산의 보관, 인출, 투자 운용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담당자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만들고 한 명에 의해 자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다중 서명 운영 절차 등을 수립해야 한다.

## C. 가상자산 기부금 환전 관리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법인은 원화시장에서 거래 후 인출이 불가능하다. 원화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는 가상화폐를 인출하여 장외시장(over the counter, OTC)에서 거래를 통해 원화로 교환할 수

있다. 장외시장은 거래소가 아니라 대형, 전문, 고액 투자자가 P2P<sup>10)</sup>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많은 제약 사항이 있다. 장외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거래하지 못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는 소액이라도 대부분의 경우 거래가 바로 체결되지만 장외거래는 반대 거래를 원하는 수요를 찾아 일정금액 이상을 거래해야 하므로 언제나 교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장외시장 거래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아 원화로 환전 거래는 가능하다. 수탁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전문적인 장외거래 서비스 기관들이 가상자산의 거래를 원하는 법인이나 대형 거래를 하는 개인 투자자를 연결하여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해 주고 있다.

NPO는 가상자산 기부금 규모, 기부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을 환전하는 원칙을 수립하고 투명한 환전 관리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OTC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가상화폐만을 기부금으로 받는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이 모이면 환전을 한다든지, 특정 날짜에 환전을 한다든지, 가상화폐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에 환전을 한다든지 등의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전에 대한 관리 부서 및 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 D. 가상자산 기부 및 회계 처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기부 받은 경우 즉각 매도한 사례만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즉시 매도를 통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금 기부금 처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시차로 인해 변동된 금액 처리에 관해 기부자와 모금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천만 원 기부를 약정하고 가상화폐 1천만 원 상당을 모금 단체로 이체했는데, 원화로 환전하는 순간 10만 원이 하락했다면 현금으로 10만 원을 더 기부하고 1천만 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금된 금액인 9,990만 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거나 모금 단체와 기부자가 합의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격차가 매우 크다면, 그리고 기부 받은 가상화폐를 모금 단체가 일정 기간동안 보유하게 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환산해야 할까?

10) P2P 거래는 제 3 자 또는 중개자없이 사용자간에 직접 암호 화폐를 사고 파는 행위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가상자산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 평가 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또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근거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연말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상속세와는 별개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을 환전, 이체하는 경우 거래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을 기부자 측에서 부담할지 NPO가 부담할지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사전에 모금기관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개별 기부를 받는 경우는 기부자와의 합의와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장윤주, 2022).

위의 간단한 설명을 참고하고 기부자의 상황, 기부 가상화폐의 종류 등에 따라 가상자산 기부금영수증 및 가상자산 기부금의 회계적 처리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상자산 기부 실행 전에 세무당국 및 담당 회계사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sup>11)</sup>

#### 〈참고〉 가상자산 평가 관련 규정

#####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11) 기부 처리와 과세에 관한 질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거나, 새로운 이슈는 질의에 회신을 받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Main.jsp](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Main.jsp)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목개정 2021. 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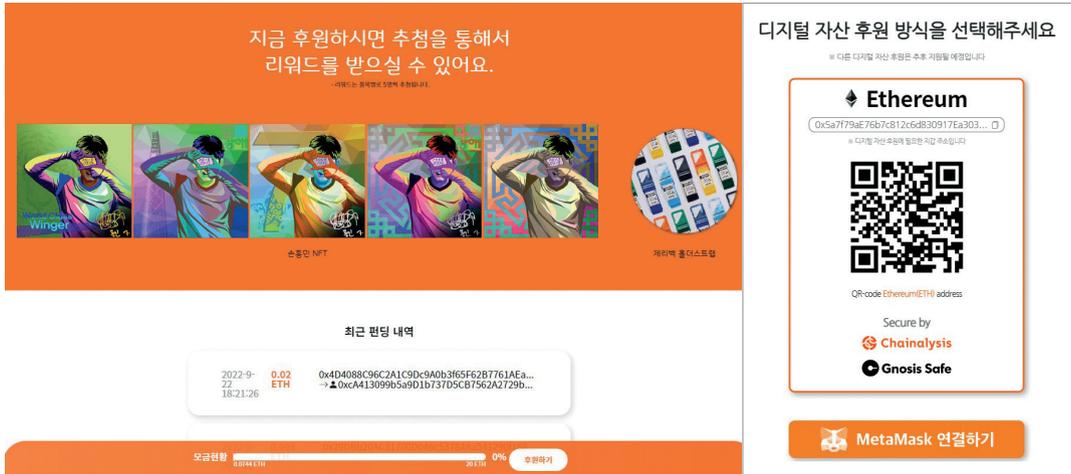
#### (4) 기부 프로젝트 운영- 모금 활동

가상화폐 기부를 받기로 했다면 이제 모금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가상화폐 모금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Givig Block, n.d.a).

첫번째, 가상화폐 기부를 위한 페이지를 홈페이지에 만든다.

기부 위젯을 사용하여 암호화 유형과 금액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부 위젯을 만들거나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제휴하여 NPO의 웹사이트에 삽입할 수 있다. 기부 위젯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기부 페이지는 기부자가 NPO의 목적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게 간결한 메시지,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넣고 FAQ와 바로 연동이 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자들이 쉽게 가상자산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아래 그림은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시작한 월드비전의 가상자산 기부 웹사이트로 기부를 받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 및 메타마스크 지갑과 연동할 수 있게 만든 페이지이다.

[그림 4] 월드비전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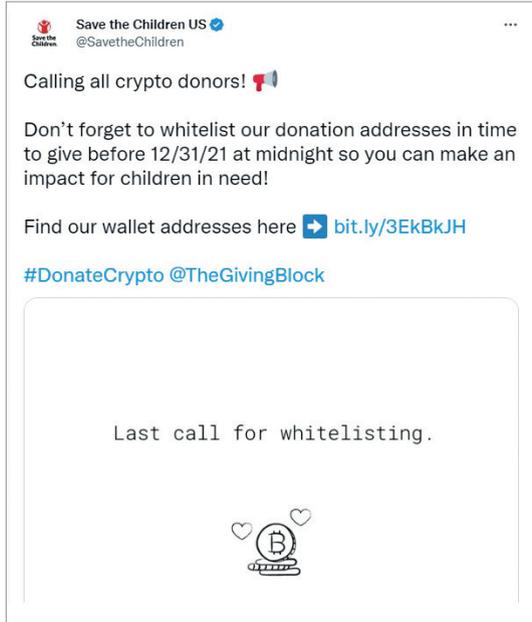


〈출처〉 World Vision Homepage (<https://crypto.worldvision.or.kr>)

둘째, 디스코드, 트위터 등 SNS에 글을 게시한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SNS, 기존 뉴스레터, 미디어 등을 통해 가상자산 기부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사실을 알린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용자나 커뮤니티가 많은 디스코드(Discord)와 트위터는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이외에 사용자가 많은 SNS로도 가상자산 기부 프로젝트,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한다. 특히 가상자산은 국내외 기부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영어로 많은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므로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운영을 하는 것이 가상자산 커뮤니티나 사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다.

[그림 5] 미국 세이브더칠드런의 트위터 포스트



참조 : <https://twitter.com/savethechildren/status/1474062502329733128>

셋째, 현재 기부자들에게 가상자산 기부를 받는 원칙에 대해 알린다.

기존에 있는 기부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기부자들이 NPO의 새로운 시도 의도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가상자산 기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뿐 아니라 SNS, 뉴스레터, 언론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존 기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가상화폐 모금 사례를 연구한다.

가상화폐 시장의 기부자들은 기존의 기부자와 다른 면이 있다. 기부자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이 높다. 또한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디스코드, 트위터 등 온

라인 채널뿐 아니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up>12)</sup>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미팅도 적극적으로 개최·참여하고 있다. 즉, 가상화폐 커뮤니티만의 독특한 문화와 채널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가상화폐 모금을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들의 캠페인에서 사용한 홍보 방법, 채널 등을 보면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기부채널들의 활동을 확인하여 성공사례를 파악하자.

다섯째, 해당 해의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모금 캠페인 또는 목표를 설정한다.

가상자산 모금 시에는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기부자들에게 미션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통해 지원하는 대상과 목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기부자들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캠페인 페이지를 설계한다. 이를 위해 명확한 지원 대상 및 숫자를 기반으로 자금 모금 캠페인의 목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금 기간을 짧게 가져가 긴박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기부자들의 기부 활동 및 메시지를 리더보드에 표시하여 기부자들의 활동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매칭기부를 함께 진행하여 후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기부자가 해킹 또는 사기를 당하지 않고 NPO의 지갑에 정확히 기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명확한 명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메뉴를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모금 활동을 위한 세팅을 하고 나면 가상자산 모금 준비는 일단 완료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고 새로운 팔로어들에게 단체 및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SNS를 통해 일반 기부자 및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면 일반 기부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기부자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Giving Block, n.d.b).

12) 별도의 중앙화된 관리 주체의 개입 없이(탈중앙화) 블록체인 상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조직

## (5) 제3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선택

이제까지 살펴본 과정을 NPO에서 직접 준비하고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아 개인키 등 중요 정보가 유출, 분실된 경우 가상자산이 탈취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거래 및 출금이 제한되어 있어 가상자산의 원화 환전을 위해서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거래 및 사후 관리에 전문성과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NPO는 가상자산 거래 시 위험하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운영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선발하는 기준과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감사 및 관리 등에 대한 내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 A. 가상자산위젯 제공자

가상자산위젯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이를 변조한 해킹 사례들이 있다. 가상자산 지갑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여 가상자산 송금이 다른 지갑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위젯은 단순해 보이지만 보안성이 중요하다. 기부영수증 발급이나 기부자의 가상자산 지갑과의 연동을 통한 실시간 기부 등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위젯을 안전하게 만든 기업의 위젯을 검토하고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B.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가상자산의 지갑과 그 안에 담긴 가상자산을 보관해 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가상자산 지갑이 해킹되는 경우 가상자산을 되돌려 받기가 어렵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C. OTC 거래 서비스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거래 중개 회사와 일하는 것이 좋다. 금액, 가상화폐의 종류에 따라 시장 상황과 가상화폐의 특징을 고려하여 거래를 실행해 준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회계적으로 공정가의 산출을 위한 시장 정보의 제공, 이에 맞춘 거래의 실행을 위해 전문적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D.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대부분의 국내 NPO는 가상자산 시장이나 가상자산을 기부하려는 기부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가상자산 기부자의 입장에서도 단체별로 찾아가 가상자산 기부를 하는 것도 어렵다. 기존에 가상자산 기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활용도 마케팅적으로 이용할 지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기부자들이 해당 NPO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알 수 있고 NPO 또한 효율적으로 가상자산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존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경험, 기부자 수, 프로젝트 및 모금 활동,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외부 서비스의 활용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3자 가상자산 기부 관련 서비스를 알아보았다. 일부의 서비스만 채택할 수 있고 전체를 채택할 수 있다. 서비스 플랫폼에 따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곳도 있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국내외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서비스 선택 시 여러 서비스 제공자를 만나보고 제공해 주는 서비스와 조건을 비교한다면 내부 운영 또는 제3자 서비스 이용,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이용할지 내부적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상자산의 기부: NFT의 직접 기부

NFT를 직접 기부 받는 경우 필요한 인프라는 가상화폐를 기부 받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가상 자산 지갑으로 NFT를 받을 수 있고 NFT의 마켓플레이스 또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NFT를 구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이동하고 해당 금액의 가상화폐를 받음으로써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품, 중고상품 등의 현물기부와 유사하게 시장 가치의 산정이 어렵고(정현경, 2020), 제한된 판매 채널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또한 NFT는 저작권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기부를 받기 전 사전 합의와 기부 이후에 보관, 판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1) 가치 측정의 모호함

현물기부의 가액 산정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당한 매매·평가 가격이다. 즉, 자산 등을 공정하게 측정된 가액으로 합리적 판단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가 거래할 수 있는 교환 가격으로 공정가액이라고 부른다.

판매가 되지 않은 NFT의 경우 현재 가격을 알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기부영수증에 기부금액 산정, 회계상의 공정가치를 정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2) 판매 채널과 유동성

NFT를 판매하는 플랫폼은 많다. 또한 트위터, 디스코드를 통한 P2P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예술품을 파는 것처럼 NFT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분에서 NFT를 NPO가 받는다면 가상화폐나 법정화폐로 현금화가 필요할 때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

### (3) 저작권에 대한 사전 합의

NFT는 발행, 소유 이력 및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 NFT를 기부 받은 경우, 발행된 NFT가 저작권을 위반하여 발행되었을 수 있고 받은 NFT의 이미지 등이 도용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원 제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NFT를 활용한 이벤트 등에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NFT를 기부 받을 때는 향후 활용을 위해 저작권 관련 부분들을 사전 합의하고 문서화 또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NFT는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게 하는 등 NFT 자체에 추가적인 기부가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어 기존의 현물 기부보다 미래의 추가적 기부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초기단계여서 거래나 가치 산정이 어렵고 저작권 이슈 등을 사전 합의 및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가상화폐 기부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들과 개별 요소를 확인하고 NFT 기부를 받을 때마다 건별로 재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NFT를 기부 증명 및 리워드로 활용

앞 장에서 가상자산을 기부 증명 및 기부의 리워드로 발급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부 증명으로 발행한 NFT는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의미에서 가상자산 기부 문화를 확대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NFT 발행 시에는 메타 데이터에 디지털 파일 링크, 화폐 발행자, 소유자, 저작권 및 재판매 시 수익 배분 조건 등 다양한 정보를 넣을 수 있어 기부 증명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NFT 기부 증명의 장점이다.

또한 NFT를 발행하는 것은 간단하다. 사용이 검증된 디지털 파일만 있다면 코딩을 하지 않고도 쉽게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직접 업로드하고 발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NPO에서 리워드 및 기부 증명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회사 및 전산 담당자와 함께 NFT에 필요한 메타 데이터를 넣어서 발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상으로도 수집용 NFT의 발행은 금융 관련 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가 교환 가능하지 않고, 유일하며, 결제 및 투자 수단이기보다 실물 수집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FATF의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홍승희, 2021). 즉 가상화폐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법규가 NF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도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며 수천만 개 이상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NFT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가상화폐와 같이 투자 및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NFT의 보유자가 발행 회사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 수익이나 배당의 형태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어 금융투자업자 자격이 있어야지 NFT를 발행할 수 있다. NFT가 법상 정의된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적용되므로 NPO가 NFT를 발행할 때 추가적인 기능을 넣는 경우는 법적 이슈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현수진, 2022).

이외에 NFT 관련 법적인 이슈로는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자산에 대한 거래 금액의 부당성 입증에 어려워 자금세탁에 사용될 유인이 높은 측면이 있다. 또한 NFT에는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만 포함되고 디지털 자산 자체는 오프체인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발행자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원본 파일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NFT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거나 오프체인 디지털 자산이 손상되면 NPO의 평판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이광욱 외, 2022).

## 4. 소결

이전 장에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기부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가상화폐와 NFT를 활용한 가상자산 기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빙블록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0-12월에 가상자산 기부가 집중되는데, 이것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가상자산 기부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국내는 개인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는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2025년 이후 가상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바로 기부하려는 필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NPO가 가상자산을 기부 받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NPO가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고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는 운영상 한계가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NPO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상자산 기부가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법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열고 거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원화시장에서 법인은 거래할 수 없어서 장외시장거래 등을 고려하고 운영상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현물기부, 익명 기부에 대한 내부 원칙을 확인하고 가상자산 기부에 맞게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조직에서 가상자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 시에는 제3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가상자산 규제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환경변화, 규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잠재 기부자들에게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커뮤니티가 많이 활동하는 SNS에서 홍보하고 잠재적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이벤트와 프로젝트 운영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대와 커뮤니티로 기부문화의 확산, 미래의 기부 원천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기부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과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NPO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에 대응하면서 가상자산 기부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김형구, & 배경훈, & 신은정. (2018). NPO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사례 연구 및 적용방안. 기획연구2018.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김성주, 이영주, 정민정. (2021) 코로나19가 비영리단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조사. 아름다운재단.
- 김성주, 장윤주, 이예림. (2021). 기부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노연희, 이민영, 장윤주, 이영주. (2022). 기빙코리아2022.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양정훈. (2018.06). 채용에서 교육, 조직문화까지 신뢰도 높은 조직 만드는 블록체인. 동아비즈니스리뷰, -250.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1/article\\_no/8662](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1/article_no/8662)
- 장윤주, 장혜원, 박다운. (2022). 블록체인기반의 기부사례 및 활용 가능성 탐색: 가상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아름다운재단.
- 정영훈. (2022.06.03). 소비자정책동향 제122호: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한국소비자원
- Eisenhardt, K. M. (1989).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 Fidelity Charitable. (2021). Cryptocurrency and philanthropy.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cryptocurrency-and-philanthropy.html>.
- Fidelity Charitable. (2022). Giving Report.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2022-giving-report.html>
- Gelatt, H. B. (1962). Decision-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3), 240.
- Giving Block. (2022). The Giving Block 2021 annual report. <https://thegivingblock.com/annual-report/>
- Giving Block. (n.d.a.) Beginners Guide to Crypto Fundraising. <https://thegivingblock.com/blog/>
- Giving Block. (n.d.b.) How to Launch a Successful Crypto Fundraising Campaign Guide. <https://thegivingblock.com/blog/>

Shin, E. J., Kang, H. G., & Bae, K.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POs with blockchain technology. *Sustainability*, 12(15), 6158.

## <웹사이트>

법제처. (2022.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법제처. <https://url.kr/12o5up>

유니세프. (2019.10.10). 유니세프, 크립토편드 시작. <https://www.unicef.or.kr/what-we-do/news/107531>

장윤주. (2022.04.11). 가상화폐를 기부받을 수 있나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6569/>

정현경. (2020.12.29). [현물기부 QnA]현물기부 가치/물품가액 산정기준. 기부문화연구소.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14094/>

체리희망나눔플랫폼. <https://givecherry.org/>

Fidelity Charitable. (2021.10.28). Growing popularity of cryptocurrency could fuel charitable giving. Fidelity Charitable.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about-us/news/growing-popularity-of-cryptocurrency-could-fuel-charitable-giving.html>

Fidelity Charitable. (2021.10). Cryptocurrency and philanthropy.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cryptocurrency-and-philanthropy.html>

Fidelity Charitable. (2022). 2022 Giving Report.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insights/2022-giving-report.html>

Give Square.(n.d.) <https://www.givesq.org/frt/main.do>

Give Track.(n.d.) <https://www.givetrack.org/>

Hold Hope.(n.d.) <https://hodlhope.org>

Macy' s.(n.d.). <https://macys.com/NFT>

Fvckrender, beeples, GMUNK, Reisinger Andrés, Sara Ludy, Refik Anadol, Kyle Gordon, & Mieke Marple. (n.d.). The Carbon Drop. NFT Gateway. <https://www.niftygateway.com/collections/carbondrop>

Open Earth. (n.d.). <https://www.openearth.nl/>

Open Earth. (2022). The #CarbonDrop: A Climate Statement. <https://www.openearth.org/blog/carbon-drop-a-climate-statement>

The Giving Block. (n.d.a) About The Giving Block. <https://thegivingblock.com/about/#bios>

The Giving Block. (n.d.b). Impact Index Fund. <https://thegivingblock.com/impact-index-funds/>

The Giving Block. (n.d.c). Orangutan Outreach Case Study. <https://thegivingblock.com/testimonials/#menu-for-nonprofits>

Unicef. (2020.06.19). UNICEF Cryptocurrency Fund announces its largest investment of startups in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cryptocurrency-fund-announces-its-largest-investment-startups-developing-and>

Unicef. (2021). UNICEF to launch UN' s Largest-ever NFT Collection to mark 75th anniversary.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unicef-launch-uns-largest-ever-nft-collection-mark-75th-anniversary>

Womenforwomen(n.d.). <https://www.womenforwomen.org/>

## <기사>

김보라. (2022.05.11). [NFT에 빠진 유통업계] “96조 시장 잡아라” . 뉴데일리 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5/11/2022051100054.html>

김하늬. (2022.07.19). 당국, "법인·기관투자자 코인거래소 계좌 허용...가상자산업 혁신안".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1914320768782>

문일요. (2019.01.30). 기부하고 희귀 아이템 선물 받고...’굿굿즈’모르면 아재래요. 더 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38729>

문일요. (2022.01.18). NFT, 모금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은미래.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1450>

- 문정은. (2022.04.07). 법인 가상자산 거래 숨통 틈나... 신한은행, 첫 법인계좌 내줘. Digital Today.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33>
- 송화연. (2019.10.09). 이더리움재단-유니세프, 아동보호 위한 크립토폰드 결성.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910091313270110>
- 안상현. (2021.12.23). 폭증하는 가상화폐 기부...투명해서 끌리고 세금 아껴 더 끌린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1/12/23/KFIMOCX4YJBNVJTA5RR23LH6RQ/>
- 알고랜드. (2021.06.21). 블록체인 로열티: NFT가 어떻게 리워드 크리에이터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는가. Algorand. <https://url.kr/lm32ae>
- 염현주. (2022.03.07). “비트코인부터 도지코인까지” 우크라이나에 680억 원 규모 암호화폐 기부 행렬 이어져. STARTUP TODAY.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8>
- 이광욱, 이주용, 이근우, 최용호, 주민석, 조세경. (2022.03.18). NFT 관련 법적 쟁점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7257>
- 이소연, 유채연. (2021.04.27). ‘기부’ 문 두드리는 가상화폐...가격변동성 커 모금단체들도 고심.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27/106624333/1>
- 이형두. (2022.05.16). 두 나무, 기부 참여 회원에게 NFT 지급. ETnews. <https://www.etnews.com/20220516000224>
- 임현우. (2022.03.07).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200개국 송금·결제 잇는 금융망...러시아 퇴출 당해. 한국경제신문.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30435791>
- 한국경제TV. (2021.12.27). 가상화폐 기부천사 급증...美 가상화폐 기부금 전년비 약 600%↑.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2270103>
- 홍승희. (2021.11.05). 금융위 “NFT 가상자산 아니다”.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105000446>
- 현수진. (2022. 03.16). NFT를 민팅하려는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규제 필수 점검사항. 디지털데일리. [http://m.ddaily.co.kr/m/m\\_article/?no=233439](http://m.ddaily.co.kr/m/m_article/?no=233439)
- Bill Haddad. (2021.11.19). Macy’ s Launches NFT Series Of 9,510 NFTs for Macy’ s Thanksgiving Day Parade. YahooFinance. <https://url.kr/wkizx5>

- Coinness. (2021.01.24). 유니세프, 설립 75주년 NFT 판매로 74만 달러 모금. Coinness. <https://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511>
- DeepikaGarg. (2019.09.09). Crypto Fund Announced by UNICEF To Back Open Source Technology. CiaNews. <https://cia.news/en/crypto-fund-announced-by-unicef-to-back-open-source-technology>
- Jakeminlim. (2021.11.15). PFP(Profile Picture) NFT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는 이유. Xangle Research. <https://xangle.io/project/CELO/insight/research/619235c23b5952fc83d6723e>
- Kasey Panetta. (2018.10.15).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 Gartner.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10-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19>
- Nina Bambysheva. (2021.06.01). NBA, MLB, NFL, AND NHL Partner Fanatics Launches NFT Company.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ninabambysheva/2021/06/01/nba-mlb-nfl-and-nhl-partner-fanatics-launches-nft-marketplace/?sh=386e1b3d537b>
- Roy Billington. (2021.11.27). Women for Afghan Women and Bookblocks.io to Partner for Charity NFT. Newswires. [https://www.einnews.com/pr\\_news/552427290/women-for-afghan-women-and-bookblocks-io-to-partner-for-charity-nft](https://www.einnews.com/pr_news/552427290/women-for-afghan-women-and-bookblocks-io-to-partner-for-charity-nft)
- Stacy Elliott. (2021.11.24). Macy' s Launches Ethereum NFT Collection Based on Thanksgiving DayParade. Decrypt. <https://decrypt.co/86715/macys-ethereum-nft-collection-thanksgiving-day-parade>

## Appendix. 용어 설명 및 영리 기업 활용사례

### 1. 블록체인

#### (1) 특징

블록체인(Blockchain)은 단어 그대로 거래 기록을 블록이라는 단위로 저장하고, 각 블록과 다른 데이터 블록을 연결하여 체인을 형성하는 기술이다.<sup>13)</sup>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탈중앙화 원칙에 따라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생성, 관리, 저장한다. P2P 네트워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참여자에게 공유되어 분산형 디지털 원장으로 불리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분산형 디지털 원장은 참여자들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공유하므로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이터 처리 방법이다.

데이터 저장소의 분산을 통해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한다. 대부분의 기존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서버 시스템으로 중앙 관리자가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관리하기 때문에 해킹 및 데이터 위·변조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고유한 암호화된 서명을 제공하며,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모든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환경에서 분산 저장소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14)</sup> 그리고 이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가 불변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정보의 불변 특성은 P2P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며, 이는 중앙 관리자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13) 업비트, (2021.12.14). 비트코인 채굴 원리. <https://m.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ain/60>

14) Amazon. (n.d). 블록체인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https://aws.amazon.com/ko/what-is/blockchain/>

블록체인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 시스템은 공개키(Public Key)와 개인키(Private Key)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인식하여 간단한 전자 서명을 통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으며, 거래 참여자를 낮은 비용으로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sup>15)</sup> 그리고 이러한 분산형 디지털 원장 시스템은 시스템의 중개자 없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기에 신용위험을 줄일 수 있어 조직의 관리를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P2P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서버의 과도한 트래픽(traffic)으로 인한 병목 문제를 해소하여 거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관리자의 의존도를 제거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신뢰 구축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 (2) 영리기업에서 활용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불변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그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 유통업계에서 활용이 돋보인다. 기존까지 국제 운송업계의 정보 시스템은 종이 원장 문서를 사용했으며, 운송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메일과 팩스, 택배 등을 통해 문서를 공유했다. 그리고 종이 원장 문서의 정보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전자 데이터로 변환되어 정보가 기록되었다. EDI는 60년 이상 된 기술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화를 떨어트렸다. 이러한 유통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IBM과 해운 그룹 머스크(Maersk) 그룹은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z)를 선보였다. 트레이드렌즈는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공급망 내 모든 운송에 대한 핵심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무역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트레이드렌즈는 캐나다, 프랑스, 터키 등 10개국 이상의 국가가 가입하였고, 현재 글로벌 물동량의 60%에 해당하는 CMA CGM과 MSC, ZIM 등 많은 선사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트레이드렌즈를 접속하는 항만 및 해상 터미널은 2021년 중국 10곳을 추가하여 600

15) 김한수, 권혁준. (2018.12.1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KIRI. [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81214\\_18737.pdf](https://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81214_18737.pdf)

개소 이상으로 사용처가 확장되고 있다.<sup>16)</sup>

해운 물류 외에도 월마트(Wal-Mart Inc) 역시 IBM 식품 이력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푸드트러스트(Food Trust)에 참여하여 유통 음식의 안전, 제조 이력, 상품 추적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월마트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500개 이상의 식품 품목을 추적하고 있으며, FDA 조사관에게 잠재적인 오염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1시간 이내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7)</sup>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한국의 백신 접종 증명 서비스인 '쿠브(Coov)'에 적용되어 COVID-19 관련 전염 통제와 감시, 면역 여부 확인이나 백신 여권 감시, 확진자 접촉 경로 추적 등에 활용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유통 산업, 식품 산업부터 백신 및 헬스케어 분야 등 제품 추적 및 소비자 신뢰도가 중요한 산업군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sup>18)</sup>

2022년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는 '블록체인 시장 분석 연구 보고 2021~2028' 보고서를 통해 2028년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1041억 9000만달러(약 125조원)에 달해 연평균 성장률이 55.8%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을 예견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COVID-19 이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조직이 많아지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어 블록체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보호 및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였다.

16) Lucas Mearian. (2018.08.20). "블록체인과 물류의 결합" ...'트레이드렌즈'현장 적용 시작. CIOKorea. <https://www.ciokorea.com/tags/28307/%ED%8A%B8%EB%A0%88%EC%9D%B4%EB%93%9C%EB%A0%8C%EC%A6%88/39291>

17) 김경은. (2021.09.10). 월마트, 까르푸,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매출 상승...식품 패션 등 공급망 추적 탁월. 블록체인월드. <http://www.bcwnews.com/4596>

18)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 기술소개. <https://ncv.kdca.go.kr/menu.es?mid=a12502000000>

## 2.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 데이터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보상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되게 되며, 가상자산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보상이다. 가상자산은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며, 가상자산의 생성을 제어하여 가치를 유지하고, 암호 수단을 통해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한다.<sup>19)</sup>

### (1) 특징

2009년 1월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 라이트코인, 리플(XRP), 이더리움 등 수많은 가상자산이 발행되었으며,<sup>20)</sup> 현재 그 종류 역시 수천 가지에 달할 만큼 시장이 성장하였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고시된 가상자산은 2022년 9월 기준 약 1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sup>21)</sup> 2022년 8월 한국무역협회(KITA)는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1년 9월 2.2조 달러 (약 2천 8백조 원) 수준이라 밝혔으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경우에 2021년 8월 최고 6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현재 550조 원에 달할 만큼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가상자산은 등장 이후 투자수단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가상자산의 높은 성장의 배경은 자산 간 거래를 중재하는 중앙기관의 부재에 있다. 가상자산은 미국의 달러(USD), 유럽의 유로화(EUR)와 같은 명목 화폐와 달리 가상자산 자체의 가치를

19) 정영훈. (2022.06.03). 소비자정책동향 제22호: NFT(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주요 동향과 소비자 이슈. 한국소비자원

20) 김제이. (2022.04.09). [비트코인의 미래①]채굴 90%가 끝나...가격 더 오를까. NEWSIS. [https://mobile.newsis.com/view.htm?ar\\_id=NISX20220408\\_0001826473#\\_eniple](https://mobile.newsis.com/view.htm?ar_id=NISX20220408_0001826473#_eniple)

21) CoinMarketCap. <https://coinmarketcap.com/ko/>

22) 안병선, 평명선. (2022.08.24).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 Trade Brief. -15. 한국무역협회.

보증하거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P2P 네트워크 상에서 가상자산은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의 통제나 의존 없이 참여자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하고, 환전 수수료가 매우 적으며,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의 적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로 인해 가상자산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결제 수단으로 금융 혁신을 이루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한 글로벌 휴대폰 결제 기업 다날(Danal)은 2019년 4월 자회사 다날핀테크(Danal Fintech)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인 페이코인(PCI)을 발행했다. 페이코인은 결제와 송금을 위해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낮은 수수료로 인해 출시 이후 외식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페이코인은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2021년 기준 약 7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으며, 출시 2년만에 250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 확보에 성공하였다. 2021년 기준 페이코인을 통한 일일 거래량은 5,000만 원 ~ 6,000만 원에 달한다. 페이코인을 통한 결제 수수료는 1% 미만으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 시장의 1.5~2% 수준 대비 매우 낮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느린 정산 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다날의 페이코인 외에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시도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sup>23)</sup>. 2022년 7월 비자(VISA)는 가상자산 플랫폼 50개사와 제휴를 맺고, 전세계 7,000만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를 선보였으며, 페이팔(Paypal) 역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인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Checkout with Crypto)'를 통해 미국 수백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sup>24)</sup> 이외에도 맥도날드, 월마트, 스타벅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 역시 가상자산 결제를 도입한 상태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의 실생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sup>25)</sup>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에서의 분산형 디지털 원장 기술을 이용한 블록체인의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활발하게 형성됨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

23) 김동환. (2020.08.07). 블록체인이 힘 "페이코인 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8분의 1" . CoinDesk Korea.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70>

24) 하이메. (2021.03.31). 페이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체크아웃 위드 크립토' 출시. Tokenpost. <https://www.tokenpost.kr/article-57036>

25) 권승원. (2022.04.11). 맥도날드, 스타벅스, 월마트, 비트코인 결제수단으로 수용한다. 블록스트리트. <https://www.blockstreet.co.kr/news/view?ud=2022040814351216148>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이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6%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빠른 인터넷 보급과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pay)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2010년대부터 ‘현금 없는 사회’로 돌입하였으며, 한국무협협회(KITA)는 ‘가속화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CBDC 발행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은 11개 디지털 위안화(DCEP) 사용 시범 운영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내, 지역 간 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 지역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통해 CDBC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sup>26)</sup>

중국 이외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기술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의 한국은행 역시 2020년 CBDC 연구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1,2 단계 모의 실험을 마치고 2022년 하반기 중 실제 사용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CBDC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결제은행은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과 CBDC 연구 그룹을 결성하여 CBDC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대 원칙을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각국의 CBDC 도입과 함께 가상자산이 일상 생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

26) 차대운. (2020.10.13). '현금 없는 사회' 중국서 ATM 하루 300개씩 사라진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067500089>

### 3. NFT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는 온라인 환경에서 고유성, 불변성 및 콘텐츠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 단위이다.<sup>27)</sup>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토큰 안에 특정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온라인 환경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고유성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온라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콘텐츠 복제, 위조 및 해킹의 용이성은 디지털 자산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sup>28)</sup>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는 중앙집중형 서버의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소실 위험, 원본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무한정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의 불변성과 유일성을 통해 디지털 자산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으며, NFT 자체가 디지털 인증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NFT 기술은 디지털 인증서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재화에 대한 고유성과 소유권 확보를 통해 가치상승, 거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NFT 기술은 2017년 대퍼랩스(Dapper Labs)에서 발행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를 시작으로 최근 컬렉터블 NFT 분야, 게임 NFT 분야, 미술품 NFT 분야, 메타버스 NFT 분야, 유틸리티 NFT 분야로 나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sup>29)</sup> ‘NFT 최근 산업동향과 시사점’은 DeFi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DappRadar)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약 9,400만 달러(약 1천 3백억 원)에 불과하던 NFT 거래대금이 2021년 들어 약 248억 달러(약 34조)까지 치솟으면서 약 262% 성장하였다고 밝혔다.<sup>30)</sup> NFT 시장의 높은 성장과 함께 성장을 견인한 분야 역시 다양하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컴퍼니(Jefferies&Company)는 2022년 1월 ‘digitally-enabled experiential tie-ins’에서 2019년 240만 달러(약 33억 원)인 NFT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800억(약 110조 원)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예견하였다. 또한 2022년 7

27) Melissa Heikkilä, (2021). NFT가 도대체 뭐야?. MIT Technology Review. <https://www.technologyreview.kr/what-is-nft/>

28) NFT&Metaverse산업에 PwC 서비스 적용 사례. (2022년 4월). PwC.

29) 김주혜. (2022.02.16). [웹3웨이브]NFT 산업을 만들고 개척하다: 대퍼랩스, 더밀크.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hemilk/business/contents/220216091945707PE>

30) 김도현. (2022.07.29). [이슈분석 219호]NFT 최근 산업동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https://url.kr/rzd7le>

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VMR(Verified Market Research)는 ‘Non-Fungible Tokens Market’을 통해 2021년 약 113억 달러 (약 15조 원)의 NFT 시장 가치는 연평균 33.7%의 성장률로 2030년까지 2,310억 달러 (약 3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sup>31)</sup>

NFT 기술은 음악, 영화, 스포츠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적용되어 성장 것으로 보이며, 콜렉터를 NFT 분야와 미술품 NFT 분야 등 다양한 NFT 분야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sup>32)</sup> 가치 있는 것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존재하지만 원본을 증명할 수 없다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기 힘들다.<sup>33)</sup> NFT 기술은 온라인 환경의 콘텐츠 복제, 위조 및 해킹을 방지하여 원본을 인증해주는 기술로 원본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로 적용될 수 있다.

#### 4. 메타버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sup>34)</sup>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sup>35)</sup> 미국의 비영리 가속연구재단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ASF)은 2007년 기술의 적용 형태(증강/시뮬레이션)와 대상의 지향 범위(내적-개인/외적-환경)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세계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메타버스의 4가지 분류의 공통점은 가상 공간과 현실의 공간 정보가 서로 교류하며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31) 코인뉴스. (2022.07.15). 리서치 "2030년 NFT 시장가치 2,310억 달러까지 성장 전망" 등.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23896/>

32) 박창현. (2021.11.15). 블루베리NFT, '프로스포츠 영상 NFT' 플랫폼 내놓는다. the bell.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1150837427760107430&svccode=04>

33) 이효은. (2022.04.24). [ITP 리뷰 1]기업들 NFT로 헤쳐모여..관심만큼 우려도 높아. ETnews. <https://www.etnews.com/20220422000096>

34) 이준희. (2021년 11월 16일). [이준희 칼럼] 메타버스, NFT 그리고 핀테크.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1902102269660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111902102269660001)

35) 손훈. (2021.10.02). 손훈 글로벌전략연구소장 KTV인터뷰(2021.10.02). KAIST GSI. <https://gsi.kaist.ac.kr/html/sub05/0501.html?mode=V&no=8db63454984b82f689c9c42ca3a7b3e3&GotoPage=1>

며, 최근 기술의 고도화와 서비스 사이의 융합으로 인해 각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추세이다.<sup>36)</sup>

메타버스가 온라인 환경의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아바타(Avatar)로, 메타버스 참여자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다른 능력과 소통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한다.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MZ세대는 자신의 부캐로 아바타를 만들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의 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사업자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홍보 및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메타버스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sup>37)</sup>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메타버스는 미래 소비 주체인 MZ세대에 대한 노출도 측면에서 기존 매체보다 더 효율적인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기존 매체 대비 긴 노출시간, 능동적 노출, 저비용 등으로 초기 실험적 단계임에도 광고 ROI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sup>38)</sup>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기업들이 속속 시장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네이버제트는 플랫폼 제페토(ZEPETTO)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이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제페토는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마인크래프트(Minecraft)와 같이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낸다는 점이 흡사하지만 셀프카메라 앱 스노우(SNOW)에서 출시한 제페토는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제페토는 메타버스를 통해 단순 소통 기능을 넘어서 가상 공연, 가상 팬미팅, 가상 점포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구찌, 현대백화점, DGB 금융그룹, 하나카드, 롯데월드,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특히 제페토 내에서 진행한 블랙핑크 가상 팬 사인회에는 4,600만 명이 참여한 바가 있는 등 오프라인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sup>39)</sup>

국내기업뿐 아니라 엔비디아(NVIDIA), 메타(META) 등 해외 기업 역시 제조 분야와 플랫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메타는 2021년 11월 페이스북(Facebook) 창업 후 17년 만에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였으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메타버스를 기반

36) 남현우. (2021). 메타버스의 환경 변화와 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38(9), 24-31.

37) 김준연. (2021). 메타버스 콘텐츠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 성장의 조건. Future Horizon, 25-30.

38) 성중화. (2021.11.22). 메타버스, NFT가 펼쳐는 미래 혁신 세계. 이베스트투자증권

39) 최한중. (2020.09.21). 가상공간 '제페토'에서 블랙핑크 만나세요.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92107991>

으로 하는 비즈니스 진화와 혁신에 초점을 둘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최근 VR·AR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유럽에서 메타버스 관련 인력으로 약 1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메타버스 분야는 민간 부분에서의 급속한 투자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sup>40)</sup>

COVID-19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불러와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적용되었으며 비대면 패러다임에서 실감형 체험 콘텐츠의 수요를 대폭 증가시켰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sis)는 2020년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80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으며,<sup>41)</sup>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PricewaterhouseCoopers) 역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019년 약 52조 원에서 2025년 540조 원, 2030년 약 1,700조 원으로 예측하는 등 성장세가 확장되고 있다.<sup>42)</sup> 최근 메타버스 관련 기술 기업 간 협업이 증가하며 먼세점, 전시장, 대학교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메타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확장성을 가지며, 현실 세계와 유사한 실재감, 10대, 20대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메타버스의 성장이 일상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사회적으로 이로운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

40) 김태훈. (2021.10.18). 페이스북, 메타버스 작업 위해 EU에서 1만명 고용. TechDaily. <http://www.tec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3>

41) 정일권. (2022.07.16). 메타버스를 내다보다. KOREA IT Times. <http://www.kore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96>

42) 윤정현. (2021). Intro: Metaverse,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Future Horizon. -49, 3-8.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비매출/무료



9 788993 842586  
ISBN 978-89-93842-58-6